



[월드컵과 경제] 포지션별 국가대표 기업 '증시의 손흥민' 삼성전자 02



Economy

코스피	2423.48 (-45.35)	코스닥	864.56 (-10.48)
금리 (우대대출)	2.24 (+0.02)	환율 (원/달러)	1083.10 (+5.90) (14일)

“재초환 피하자”... ‘1대1 재건축’서 ‘신탁’ 방식까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재건축시장 지각변동

(上) 규제와 재건축

재건축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자 다양한 대안이 나오는 추세다. 6·13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강화,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시장의 위축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메트로신문이 지각변동을 겪고 있는 재건축 시장의 현주소와 미래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주)

정부의 아파트 재건축 규제에 따라 재건축 양상이 바뀌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등 규제 부담을 덜기 위해 '1대1 재건축'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하는 단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이달에도 보유세 강화 등 추가 규제가 예고되어 재건축 시장 위축이 이어질 전망이다.

◆ 재초환 부담금 등... '규제 피하자'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단지들이 재초환에 따른 부담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1대1 재건축 방식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1대1 재건축은 현재의 세대수와 동일한 세대수로 재건축해 일반 분양을 없애는 방식이다. 일반 분양에 따른 조합원 수익이 없는 만큼 재초환을 대폭 줄이는 대신 추가 건축비를 들여 단지를 프리미엄화(化)하는 전략이다. 최근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에 위치한 '래미안 첼리투스'는 조합원들이 각각 5억여원씩 부담해 공사비를 충당했다. 그 결과



용산구 '래미안 첼리투스' 조합원, 공사비로 5억 들여 재초환 부담금 폭탄 피해 현재 시세가 3배가량 상승

조합 대신 신탁사 시행도 부담금 축소 대안으로

현재 시세가 30억원대로 뛰었다. 입주 전 렉스 맨션아파트 시세 (10억원대 초반)에 비해 3배가량 오른 셈이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5차를 재건축한 '아크로리버뷰'도 1대1 재건축 방식을 이용했다. 이 단지는 분양 당시인 2016년 서울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인 306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주목받았다. 현재 시세는 10억원 후반~20억원 중반대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서초구반포동 강남원 효성빌라, 광진구 위커했 아파트 등도 1대1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재초환 축소 방안으로 신탁 재

건축도 뜬다. 신탁 재건축은 신탁사가 조합을 대신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신탁사가 사업 주체가 되는 '시행자 방식'과 조합의 위탁을 받는 '대행자 방식'으로 크게 나뉜다. 시행자 방식의 경우 신탁사가 사업비 조달부터 분양까지 다한다. 이 방식을 이용하면 조합이 신탁사에 일을 맡길 때 드는 수수료(2~3%)가 개발비용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재건축 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

최근 대전 용운주공아파트가 대표적인 신탁방식 재건축 성공 사례다. 이 단지는 지난해 12월 'e편한세상 대전 에코포레'란 이름으로 일반분양했고 지난 4월 중순 완판됐다. 신탁방식 재건축 사업 중에선 첫 성공사례로도 꼽힌다. 이 밖에도 여의도 한양아파트와 광장아파트, 영등포 신길우성 2차아파트 등이 신탁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한다.

◆ 규제 분위기 여전... '재건축시장 한파 지속' 이런 분위기 속에도 재건축 시장은 여전히 한파다.

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8·2 부동산 대책 때 나온 금융 규제나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등이 시행되고 있고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 통지 등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자 재건축 시장이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시장은 5월 넷째 주까지 6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5월 넷째주 송파는 재초환 통보 등의 여파로 잠실동 주공5단지 1500만원 정도 내렸고, 잠실동 리센츠, 엘스 등 일반 아파트도 매수세가 없어 가격이 하향 조정됐다.

6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은 0.01%로 전주(0.02%)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반면 서울 재건축 단지 주간 변동률은 -0.05%로 짙은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다.

재건축 시장은 한 동안 냉랭한 분위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임 책임연구원은 "재건축 방식이 다양화되면 투자 수요 접근이 용이해졌다"면서도 "그러나 투자목적이 강한 재건축은 추가적으로 가격이 상승한다는 기대감이 있어야 한다. 현재 시장 여건에서 (추가 가격 상승 기대가) 어려운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아울러 6월엔 보유세 강화 방안이 나오고 기준금리도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며 "재건축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있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정부·시·구 ‘한 색깔’ 과감한 혁신 보여줄 것”

'3선' 박원순 서울시장 6월 정례간부회의 주제

“과거 시행착오를 겪고 안정적인 행정을 펴내라고 제도와 관행 속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이제 그것을 뛰어넘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다른 구청장들과는 한 컬러, 한 라인이기에 과감한 혁신을 할 수 있다”

52.8%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사상 첫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14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들러 참배를 마친 후 방목로에 '새로운 시작'이라고 적었다. 이후 오전 10시께 앞으로 4년 동안 더 일하게 될 서울시정에 출근해 정례간부회의를 열고 다시 시정업무에 시작했다. 회의가 끝나고는 오전 11시 10분부터는 간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선거가 큰 변수없이 끝났다. 북미정상회담이 잘 돼 큰 도움이 된 것 같고 특히 그동안 민주당 출신이 진출하지 못한 강남구, 송파구 등에서 압승하면서 참으로 세상이 바뀌었구나를 느꼈다. 이제 시민의 삶을 높이고 좋은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가 과제가 됐다. 부담과 책임을 더 느낀다”고 했다.

특히 박 시장이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에서 분향 후 목욕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앞으로) 서울시장은 못 나오겠지만 여러번 선거에 나올 수 있다”면서도 “서울을 전국의 모델, 세계적 모델이 되도록 하겠다는 일념 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일축했다.

박 시장은 “문재인 정부와 다른 구청장들과 한 컬러, 한 라인이기 때문에 과감한 혁신과 혁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박 시장은 이날 정례간부회의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언급하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서울시가 나서서 먼저 주 52시간 근무를 지키도록 하겠다”며 3선 당선 후 서울시 조직문화의 첫 변화를 예고했다.

/오진희·김현정 기자 valere@

美 금리 0.25%p 추가 인상... 韓美 격차 확대

1500조 가계부채 악재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에 따라 채권금리와 대출금리 등 시장금리 상승이 예상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고민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13일(현지시간)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미 기준금리는 기존 1.50~1.75%에서 1.75~2.0%로 올랐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 연 1.50%다.

미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기준금리 인상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 3월 0.25%포인트 인상에 이어 석 달만이자 올해 들어 두 번째 금리 인상이다. 이른바 미국의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 코스피가 하락한 14일 오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3.35포인트(1.84%) 내린 2,423.48로 거래를 마쳤다. /연합뉴스

‘제로(0) 금리’ 이후로는 7번째 금리 인상이기도 하다.

연준은 올 하반기 기준금리를 두 차례 추가 인상함으로써 올해 모두 네 차례 올릴 가능성을 시사해 세계 금융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의 전망은 한국경제의 체력이 튼튼해져 당장 큰 영향

이 없겠지만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얘기한다. 한·미 금리가 역전되면 원화값은 비싸(수출 경쟁력 약화)지고, 1500조원 규모의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간 단기 금리 차가 1%포인트 확대되면 원·달러 환율은 1.34%포인트 하락(원화값 상승)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원화 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우리 기업이 달러로 받은 수출대금을 원화로 환전했을 때 그만큼 손실이다. 특히 기업들은 세계적인 경기위축 상황에서 자금사정까지 나빠지면 ‘신용강등’까지 걱정해야 한다. 회사채 등 자금조달 시장에서 ‘신뢰는 곧 돈’이다. 아무리 장사를 잘해도 오너나 외부 변수가 터질 경우 기업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미국으로 다시 돈이 향할 경우 세계증시에서 ‘플래시 크래시(flash crash: 짧은 시간에 주가 급락)’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 우려에 2423.48(1.84% ↓)까지 밀려났다. 원·달러 환율은 5.9원 오른 1083.1원에 마감했다.

/김문호 기자 kmh@

한미 기준금리 역전폭 0.5%p로 확대

외국자본 이탈·수출경쟁력 약화... 韓 경제 '비상등'

수출기업 514곳 경영영향 조사 48.4% '환율변동 심화' 꼽아

한국도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 가구당 대출이자 18만원 늘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파월 의장이 13일(현지시간) 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 폭도 0.50%포인트로 확대됐다. '느리게 가던 자전거(한국경제)'가 '높은 언덕(한·미 금리 역전폭 확대)'에서 역주행 할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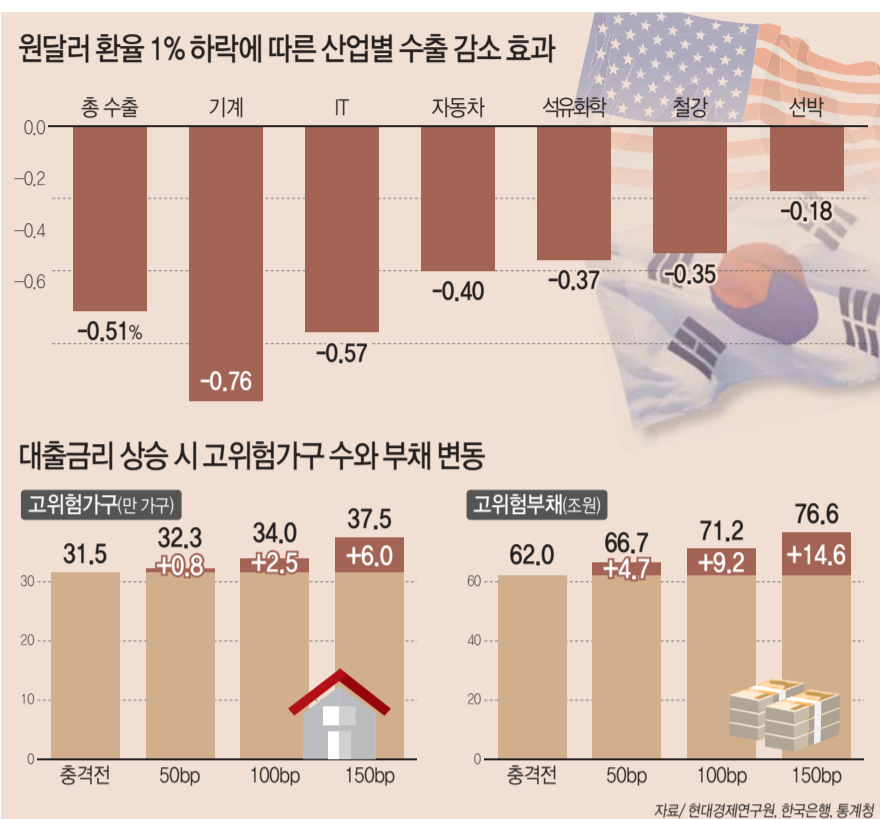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2% 줄어 26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설비투자 증가율도 대폭 하락했다. 믿었던 수출도 비틀대면서 4월 수출이 18개월 만에 감소했다.

전문가들의 전망은 한국경제의 체력이 다른 신흥국에 비해 튼튼한 만큼 큰 영향이 없겠지만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얘기한다. 한·미 금리가 역전되면 원화값은 비싸(수출 경쟁력 약화)지고, 1468조원(한국은행 1분기 말 기준) 규모의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으로 다시 돈이 향할 경우 세계 증시에서 '플래시 크래시(flash crash·짧은 시간에 주가 급락)'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 한·미 금리역전, 외국인 발 빼나

한·미 금리 역전 폭이 0.50%포인트까지 확대됐다. 시장에서선 취약계층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이들이 보유한 대출이 부실화돼 경제위기의 트리거(방아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험적으로는 큰 충격이 없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6월~2001년 3월, 그리고 신용카드 사태 직후였던 2005년 8월



~2007년 8월에 한·미 기준금리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경제에 큰 충격은 없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차 역전 시기에 한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11%, 수출 증가율은 20%를 기록했다. 두번째 시기인 2005년 1년간 한국 경제는 5% 성장세와 10%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2005년 7월 글로벌 신용등급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상향하고, 북한을 포함한 6차 회담 재개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코스피가 상승 곡선을 그렸다.

하지만 자본시장에는 적잖은 영향도 컸다. 지난 3월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된 후

외국인은 3월 -4676억원, 4월, -1조3133억원, 5월 -2764억원의 매도세를 나타냈다. 최근 남북미 화해무드가 조성되면서 그나마 이탈이 줄어든 모양새다.

과거에도 비슷했다. 지난 2005년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자 그해 7월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2조원 가량 순매수하던 외국인은 금리 역전을 기점으로 8월부터 5조원 순매도로 돌아섰다. 이어 2006년 10조원, 2007년엔 24조원 이상의 외국인 자금이 이탈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연준이 올해 4차례 인상을 해서 한미 금리 차가 1%포인트가 된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자본 유출은 감내할 수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미 금리차 확대... 환율 하락 요인

경기도에 동지를 둔 자동차 부품업체 B사는 요즘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는 소식에 한숨이 나온다. 이 회사의 영업담당 부사장은 "경험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에 달러값이 하락했다. 예상대로라면 올해 장사도 손익분기점(BEP)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걱정했다.

한·미 금리 역전에도 수출기업들은 주름살이 늘게 됐다. 통상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달러가 강세고 원하는 약세로 바뀐다. 하지만 현실은 따로 가고 있다.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쓰고 있어서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는 "미 금리인상이었던 2004년부터 2006년까지도 달러화 약세 완화 강세였다"며 "지금의 금리인상 기조가 유지될 경우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연간 수출실적 50만달러 이상인 기업 51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출기업의 경영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이유로 '환율 변동 심화'(48.4%)를 첫 손가락에 꼽았다.

수출기업들은 보통 환율이 10% 하락하면 운송장비업의 영업이익률은 4%포인트, 전기전자산업은 3%포인트, 기계장비는 2.8%포인트 감소한다고 분석한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자동차, 선박,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이 대부분 타격을 입는다는 의미다.

현대자동차그룹 산하 한국자동차산업 연구소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0원 하락할 경우 자동차업계 매출이 연간 4200억원 감소한다.

한·미 금리 차 확대도 걱정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미 간 단기 금리 차가

1%포인트 확대되면 원·달러 환율이 1.34%포인트 하락(원화값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 연구원 박정용 연구원은 "외환 당국은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에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시장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제 펀더멘털 강화로 대외변수에도 안정적인 기초 체력을 유지해야 하고 기업은 환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 1468조 가계부채... 고위험 가구 갚아야

서민들의 주름살도 늘게 됐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에 맞춰 맞춰 기준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마음을 바꿀 가능성이 있어서다. 금리가 오르면 1468조 규모의 가계부채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진다. 전체 가계대출의 70%정도가 변동금리 대출이다.

통계청의 올해 가구 추계(1952만 가구를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가구당 가계부채는 7269만원, 가구당 늘어나는 이자 부담은 18만1725원이다.

문제는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계층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올 1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128만6700원으로 1년 전보다 8.0% 줄었다. 소득 하위 20~40%(2분위)인 가계 역시 4.0% 감소했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대출금리가 올라 지출은 늘어나다 보니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연체가 발생하기 시작할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3개 이상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저신용(7~10등급)이면서 저소득(하위 30%)인 취약차주의 대출이 지난해 말 12조7000억원으로 1년 전에 견줘 5000억원 늘었다고 집계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이주열 "국내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 취약차주 부실화 우려도

(한국은행 총재)

韓·美 금리역전 폭 확대

한은, 통화금융대책반 회의 개최 "아르헨 등 신흥국 상황 지켜보아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3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연 1.75~2.00%)하면서 우리나라(연 1.50%)와 금리차가 0.50%포인트로 확대됐다. 올 들어서만 지난 3월에 이은 두 번째 금리 인상이다. 특히 미 연준이 올 하반기에 또 다시 기준금리를 두 차례 추가 인상할 것으로 보이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른 외국인 자본 유출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14일 오전 미국의 금리 인상 결정에 따른 우리 금융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허진호 부총재보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선 유상대 부총재보, 한은 통화정책국장, 금융시장국장, 국제국장, 공보관, 투자운용1부장 등이 참석하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결정이 국내의 금융시장에 주는 영향을 분석했다. 또 지난 12일 북미정상 회담에 따른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이 총재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할 정도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국내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 신흥국 위기 지켜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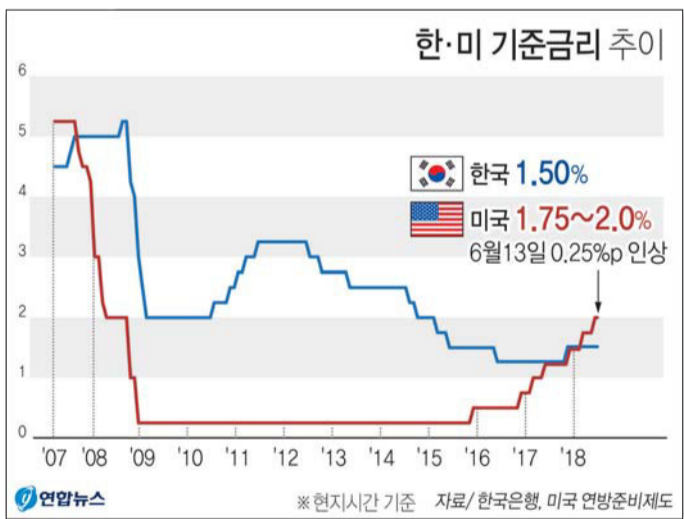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 금리 인상은 국내 금융시장에 제한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일부 취약 신흥국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부채 및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일부 취약국의 경우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금융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제기된다.

이 총재는 "미국의 금리 인상 경로를 보여주는 점도표를 보면 올해 두 차례 더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시장에선 이를 매과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아니라고 받아들여 결과를 놓고 보면 차분한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 시장에 준 영향도 제한적으로 나타난 만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우려할 만큼 크지 않고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 역시 이날 오전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 금리인상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 외화유동성 등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허진호 한은 부총재,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정구돈 국제금융센터 원장 등이 참석



관은 "미 금리 인상으로 향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고 특히 최근 아르헨트나, 터키, 브라질 등 일부 신흥국 금융 불안이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 은행 대출금리 상승세... 취약계층 부실 우려

한편 국내 금융시장에선 미 금리 인상으로 은행 대출금리 상승세에 탄력이 붙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른 취약계층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이들이 보유한 대출이 부실화돼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지적이다.

실제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P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는 신규 취급액 기준 지난 2016년 9월 1.31% 저점을 기록한 이후 올 4월 1.82%까지 올랐다. 미 금리 인상 시기와 부합한다. 지난달에는 1.79%로 주춤했으나 역대 최저치와 비교하면 여전히 0.48%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은행권 대출금리는 지난해 9월 3.24%에서 올 4월 3.47%로 0.23%포인트 올랐다.

문제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차주 부담이 더욱 커졌다는 것이다.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계층부터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봉준 기자 bj35sea@

SK이노베이션의 선택과 집중

전기차 배터리에 집중 위해 ESS 개발하고도 출시 안 해

(에너지저장장치)



SK이노베이션 서산 배터리 공장.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이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개발하고도 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전기차용 전지 생산 집중 때문이다.

ESS는 전력을 비축할 수 있는 장치다. 거대한 하나의 건전지라고 볼 수 있다. 전력 공급량이 과다할 때 ESS에 전력을 저장했다가 전력 공급이 많이 필요한 때에 전력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17년 하반기 SK이노베이션은 이미 ESS 개발을 완료했다. 당시 일부 ESS 사업자들 사이에는 SK이노베이션이 개발한 ESS 성능이 알려지기도 했다. 총방전 수명 6000회에 70% 수명을 보증하는 수준이다. 전지를

충전하고 방전하는 과정을 6000회 반복한 뒤에 전지의 저장 가능 에너지량이 최초 저장 가능한 에너지량의 70% 수준이 된다는 뜻이다. 이는 삼성SDI와 LG화학에서 현재 생산하는 ESS와 비슷한 수준이다.

ESS는 하루 종일 충전과 방전을 거듭한다. 설치되는 공간이 커도 큰 문제가 없어 에너지밀도보다 총방전 수명이 더 중

요하다. 반면 한정된 공간을 사용하는 전기차용 전지는 높은 에너지밀도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이 때문에 이차전지 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전기차용 전지 셀과 ESS용 전지 셀 내부 설계를 다르게 한다.

용도에 따른 전지의 내부 소재 설계만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생산라인으로 ESS용 전지를 만들거나 전기차용 전지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LG화학은 중국

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업체에서 제외되자 중국 난징에 위치한 이차전지 생산라인에서 ESS용 전지를 주로 생산하기 시작했다. 중국 난징에서 ESS용 전지를 생산해 국내외 ESS업체에 공급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LG화학은 이를 통해 난징공장의 가동률 회복과 전지사업부문 수익성 강화를 동시에 꾀할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ESS용 전지는 전기차용 전지에 비해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원인은 공급부족이다. 국내 ESS 시장은 2017년부터 공급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국내의 ESS 시장이 커지며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 때문에 ESS용 전지의 수익성은 전기차 전지 수익성보다 높다.

수익성 면에서 유리한 사업임에도 SK이노베이션이 ESS를 양산하지 않는 이

유는 안정적이지 않은 수익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자동차용 전지의 경우 고객사인 자동차 업체에 한 건을 계약하면 몇년 동안 꾸준한 제품 공급을 담당하게 된다. 1건당 수익성이 ESS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다. 반면 ESS는 수요량이 일정하지 않다.

현재 ESS 시장이 공급부족에 처한 이유도 수요의 불안정성에 원인이 있다. LG화학과 삼성SDI 역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동차용 전지 시장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ESS용 전지를 공급할 여유가 많지 않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은 현재 전기차용 전지 생산에 집중하고 있어 생산라인에 여유가 없다"며 "ESS사업 참여는 향후 생산라인에 여유가 생길 경우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찬길 기자 cgr@metroseoul.co.kr



성수기 맞은 LG 휘센... 판매량 40% '경종'

14일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LG전자 군포 물류센터에서 에어컨 설치기사들이 LG 휘센 쌍규 에어컨을 배송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LG 휘센 에어컨의 6월 첫 주 판매량은 전주와 비교해 40% 이상 증가했다. LG전자는 올해 한층 더 강화된 인공지능으로 공간·환경·사용패턴을 스스로 학습하는 LG 휘센 쌍규 에어컨을 선보이며 국내 프리미엄 에어컨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LG전자

SK(주) C&C '클라우드 제트 엣지' 인기몰이

SK(주) C&C는 14일 자사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 상품인 '클라우드 제트 엣지'가 ㈜에이피솔루션즈, ㈜서연이화인디아, ㈜비스텔, 대양그룹 등에 잇따라 공급되며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제트 엣지는 제조·금융·의료·건축·교육 등 전문적인 분야에서 보안 등의 이유로 독립적인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원하는 기업들을 위해 개발된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패키지 상품이다.

자동차·항공기 설계 전문기업인 ㈜에

이피솔루션즈는 클라우드 제트 엣지를 통해 회사의 주요 설계도를 완벽하게 보호하면서도, 외부 어디서든 사내 클라우드 시스템에 접속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인 ㈜서연이화인디아와 스마트 제조솔루션 전문기업인 ㈜비스텔 등은 클라우드 제트 엣지를 도입해 서버·워크스테이션·노트북은 물론 네트워크 자원까지 통합 운영함으로써 IT 설비 신규 도입 비용을 50% 이상 절감하고 관련 라이선스 도입 비용도 40% 이상 줄였다.

/구세윤 기자 yuni2514@

르노 클리오, 출시 첫달에 소형차시장 1위 등극

'해치백 무덤'으로 불리는 국내 자동차 시장에 르노 클리오가 성공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지난달 출시한 르노 클리오가 고객인도 영업일 10일 만에 756대가 판매됐다고 14일 밝혔다. 르노 클리오의 5월 판매량 756대는 현대차 엑센트의 기록(3월 574대)을 넘어섰으며 한국GM의 볼트EV(1014대)를 무서운 속도로

추격하고 있다. 정부지원 공모지원과 같은 판매 특수성이 있는 전지를 제외하면, 클리오가 출시 첫 달 소형차 판매 1위에 등극하면서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특히 르노 클리오의 판매 가격은 프랑스 현지에서 판매하는 '인텐스' 트림의 동일한 선택사항과 비교할 때 1000만원가량 낮게 책정된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냈다.

/양성운 기자 ysw@

美 IT 매체 “LG OLED TV 번인 발생 확인”

알팅스, 번인 테스트 중 실제 확인 지속 노출·픽셀 밝기 등 잔상 원인

OLED TV를 통해 세계 TV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던 LG전자에 '악재'가 터졌다. 그동안 OLED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던 '번인(burn-in)' 현상이 실험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최근 미국의 IT 디바이스 리뷰 매체인 알팅스는 OLED TV 번인 테스트 중 실제 번인을 확인했다고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으로 14일 밝혀졌다. 번인이라 TV 시청시 긴 시간동안 같은 화면을 켜두거나 방송사 로고같이 동일 이미지가 한 위치에서 오랫동안 반복 노출될 때 생기는 영구잔상을 말한다. 해당 부분의 색상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거나 화면에 얼룩이 생긴 것처럼 보인다.

알팅스는 올 1월말부터 LG전자의 OLED TV 6대를 대상으로 하루 20시간 동안 일반 사용자 시청 화면을 켜고 번인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번인 현상이 나타났음을 확인했다.

알팅스는 밝기를 최대화 상태에서 CNN 방송을 지속적으로 시청할 경우 CNN 방송의 속도 배너 형태에 검은 자국이 발생한다고 보도했다. CNN은 자주 속보를 내며 이 과정에서 로고노출이 빈번하기 때문에 번인을 일으킨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번인은 최대 휘도에서만 발생하지 않았



알팅스가 실시한 LG OLED TV 번인실험1.

/알팅스 홈페이지

다. 동시에 테스트하고 있는 일반 시청환경의 CNN 방송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속도 배너 번인이 나타났다.

알팅스는 테스트 Q&A 코너를 통해 "OLED TV가 출시된 이래로 이런 문제는 나아졌지만, 테스트와 유사한 콘텐츠 시청으로 TV를 볼 때 번인이 발생할 것이 매우 걱정스러운 사람은 다른 기술을 채택한 패널을 선택하라"고 권했다.

번인 문제는 외국 테스트뿐 아니라 국내 실사용 사례에서도 발생했다. 지난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대한항공 마일리 클럽 라운지에서는 출발 게이트와 수속 현황 안내 모니터용으로 사용된 LG전자의 2018년형 OLED TV에서 TV를 꺼도 하얀색 테두리가 잔상으로 남는 번인 현상이 발견됐다.

LG전자가 2015년 남산 N서울타워에 설치한 OLED터널에서도 번인이 확인됐다. 터널의 한 패널에는 꽃 그림의 번인 현상이, 다른 한 쪽에는 푸른색의 네모가 2점씩 찍히는 현상이었다.

번인 현상은 유기물 소재를 채택한 OLED 화면 패널에서 흔히 발생하며 OLED TV의 치명적 결함으로 꼽힌다. 자발광 디스플레이인 OLED TV는 개별 픽셀이 빛을 내는데 강한 빛을 오랜 시간 낸 픽셀의 경우 밝기가 떨어지면서 잔상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LG전자는 올레드TV 제품사 용설명서에 '장시간 정지 영상을 시청하는 경우 화면 잔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고정된 화면을 너무 오래 시청하는 것을 피하라'고 표시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삼성전자, AI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넥스트 Q 펀드' 발족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관련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전용 펀드를 발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삼성전자의 혁신조직 삼성넥스트는 첨단 AI 기술 보유 신생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넥스트 Q 펀드'를 출범시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신성장동력'으로 지목한 AI 분야에서 우수 인력과 기술을 빠르게 확보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최근 최고혁신책임자(CIO)로 임명된 삼성넥스트 데이비드 은 사장이 이를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넥스트 Q 펀드는 일종의 벤처펀드로 AI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투자를 포함해 벤처기업과 연구개발(R&D) 인력 간 연결 지원도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시뮬레이션 러닝을 비롯해 ▲직관물리학 ▲로봇제어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메타 러닝 ▲자율주행 등 주로 새로운 개념의 AI 기술 연구와 함께 관련 신생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펀드 운용에는 딥러닝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인 벡터연구소의 데이비드 듀브노드 교수와 시각인식 능력을 갖춘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프린스턴대 올라 투사

코브스키 교수 등이 자문 등 역할을 통해 관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투자펀드 설립이 최근 이 부회장의 미래 먹거리 발굴 행보의 일환이란 해석도 내놓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영국·캐나다·러시아 등 5개국에 글로벌 AI 연구센터를 설립했으며 곧 프랑스에도 AI 센터를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에는 AI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자로 알려진 미국 프린스턴대 세바스찬 승 교수와 펜실베이니아대 대니얼 리 교수를 동시에 부사장급으로 영입했다.

/안병도 기자

시가 촬영모드 ‘척척’... 붐박스는 웅장한 음악 ‘뽐뽐’

▶ 체험기 | ‘LG G7 씽큐’ 써보니

19개 촬영모드 중 최적화 추천 어두운 곳 ‘슈퍼 브라이트’ 유용 큐보이스, 뉴스검색 기능 아쉬워

지난달 18일 국내에 출시된 LG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LG G7 씽큐(ThinQ)’를 최근 일주일 간 사용해봤다. 진화한 카메라와 웅장한 스피커가 인상적이었다.

가장 많이 사용한 건 카메라 기능이다. 스스로 사물을 인식해 최적의 화질을 추천하는 인공지능(AI)카메라는 사진을 찍는 즐거움을 높여준다. 음식 사진을 찍을 땐 ‘음식’ 모드로 바뀌고 꽃 사진을 찍을 땐 ‘꽃’ 모드로 바뀐다. 인물, 동물, 도시, 하늘, 해변 등 19개 자동 최적화촬영모드를 추천한다. 찍은 사진은 AI가 153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해 저장돼 사진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피사체의 종류에 따라 인식 시간은 다르게 소요됐다. 꽃의 경우 처음 인식하는 데는 4초간의 시간이 걸렸지만 그다음부터는 꽃을 비추는 즉시 꽃모드로 전환됐다. AI카메라로 잔디를 비추자 ‘휴가, 초



같은 자리에서 광각카메라 기능을 통해 찍은 사진.



일반 카메라모드(위)와 시가 추천해준 꽃 모드(아래).



일반 카메라 모드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모습을 슈퍼 브라이트 카메라 기능으로 찍은 사진.

록, 고요함, 자연, 시금치, 소금 웅덩이, 알리움 꽃, 배경, 잔디, 맥주’ 등의 단어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사라지며 30초가량이 흐른 후에 ‘자연’ 모드로 전환됐다.

107도의 초광각 카메라도 유용하다. 같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도 넓은 시야의 사진을 얻을 수 있다. 좁은 공간에서 특하나 그 기능이 돋보인다.

어두운 환경에서는 슈퍼 브라이트 카메라가 자동으로 켜진다. 일반 카메라 모드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모습을 슈퍼

브라이트 카메라 기능을 통해 밝은 사진을 얻을 수 있다. 화질은 다소 아쉬웠지만 플래시를 켜는 번거로움 없이 찍을 수 있었다.

피사체 주변의 배경을 흐릿하게 보여주는 아웃포커스 기능도 자주 사용했다. 찍고 난 후 앨범에서 언제나 흐림의 정도가 조절 가능하다.

G7 씽큐는 한낮의 밝은 햇볕 아래에서도 선명한 화면을 보여준다. 1000니트 화면을 구현하는 ‘밝기 부스트’ 기능을

탑재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스마트폰의 전체 화면 밝기가 500~600니트 정도임을 감안하면 2배 가까이 밝은 셈이다.

붐박스 스피커는 놀라웠다. G7 씽큐는 스마트폰 자체가 스피커의 울림통 역할을 하는 신기술인 붐박스 스피커를 탑재해 스피커 울림통의 크기를 일반 스마트폰보다 10배 이상 키웠다. 음악을 켜고 테이블이나 상자 위에 올려놓으면 크고 웅장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평소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들을 때 블루투스

스피커를 사용했는데 G7 씽큐는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할 필요를 못 느끼기도 했다. 올려놓는 위치를 바꿔가며 듣는 재미도 느낄 수 있다.

큐보이스도 이전에 체험해봤던 LG V30S+ 씽큐 보다 똑똑해졌다. 지난 4월 체험 당시 V30S+ 씽큐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알려줘”라고 말하자 “도와드리고 싶지만 그건 조금 더 배워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라고 답했다. 그런데 G7 씽큐는 같은 요청을 하자 ‘오늘의 주요 뉴스’를 검색한 화면을 보여줬다. 다만 오늘의 최신 뉴스가 아닌 과거의 뉴스들을 보여준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디스플레이가 알파벳 ‘M’ 형태인 노치 디자인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해봤지만 불편함이나 어색함이 들지 않았다. 또한 뉴 세컨드 스크린을 통해 화면의 형태와 기능을 바꿀 수 있다.

글·사진=구서운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中心 사로잡은 ‘갤S9’, 신제품 중 1위

삼성전자 상반기 출시 제품 중 ‘1위’ 디자인·카메라·혁신기능 주요 평가

중국에서 삼성 갤럭시S9 시리즈가 올해 상반기 출시한 신제품 중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 남방도시보는 올해 5월까지 중국에 출시한 플래그십 신제품 10종을 비교 평가했다. 주요 평가 항목은 ▲외관 ▲카메라 ▲혁신 기능 등 항목이었다. 이 매체는 기자의 실제 체험과 외부 기관 평가 등을 종합했을 때 갤럭시S9 시리즈가 디자인을 비롯해 인공지능(AI) 등 혁신적인 기능에서 가장 앞섰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1위를 차지한 갤럭시S9는 디자인 45점



(1위), 카메라 44점(2위), 혁신 기능에서 50점(1위)으로 총점 139점을 얻었다. 샤오미 미8은 총점 134점(각각 44점, 40점, 50점)으로 2위에 올랐다. 화웨이 P20는 총 128점(각각 39점, 49점, 40점)으로 3위를 기록했다. 아너 10, 비보 X21, 오포 R15 등이 그다음 순위를 이었다.

갤럭시S9는 OLED 디스플레이 채용, 글라스 바디, 4가지 색상이 우수하고 AI

기능을 접목한 카메라, 얼굴 인식, 음성비서 등 혁신 기능도 가장 발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카메라 부문에서 후면 3개 렌즈를 탑재한 화웨이 P20에 밀렸다.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중국에서 삼성전자는 몇 년째 고전하고 있는 중이다. 작년 4분기 점유율은 0%대였으며, 올해 1분기 1.3%(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 조사)로 점유율이 소폭 늘어났다.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모델 외에 중저가폰 라인업을 대폭 보강하면서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활로를 찾고 있다. 최근 중국 시장 한정판으로 갤럭시S8의 파생모델인 갤럭시S 라이트를 출시했고 중가폰인 갤럭시A9스타 판매도 중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할 예정이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무안發 국제노선 특가... 日 6만원대 부터 (오사카 편도)

제주항공 무안공항 노선 확대

제주항공이 무안공항을 ‘제3의 허브’로 삼아 노선 확대에 드라이브를 건다.

제주항공은 15일부터 21일까지 무안국제공항 기점의 일본, 베트남, 태국, 대만 등 국제선 4개 노선에 대한 특가 항공권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15일부터 10월 27일까지 탑승 가능한 편도 항공권을 유류할증료 및 공항시설 사용료 등을 모두 포함한 총액운임(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운임)을 기준으로 ▲무안~일본 오사카 노선은 최저 6만4800원부터 ▲무안~베트남 다낭 노선은 최저 16만1300원부터 ▲무안~태국 방콕 노선



은 최저 10만1300원부터 판매한다. 또 오는 7월27일 신규 취항하는 ▲무안~대만 타이베이 노선은 최저 8만4800원부터 판매한다.

제주항공은 또 무안~타이베이 신규취항에 맞춰 회원에게는 선착순(494명)으로 1만원권의 할인쿠폰을 주며, 이 기간 동안 신규회원으로 가입하면 최대 4만원권의 할인쿠폰을 증정한다. /양성운 기자

동국제강 국내 최초 ‘항균’ 컬러 강판개발

동국제강이 국내 최초로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 서식 등을 억제하는 항균 컬러강판 개발을 마치고 본격 양산에 들어갔다. 프리미엄 컬러강판 시장 공략에 나선 것이다.

동국제강은 약 1년 간의 연구 끝에 항균 컬러강판 개발을 완료하고 렉스틸의 서브 브랜드인 ‘렉스틸 바이오 코트’(사진)를 론칭했으며, 6월부터 판매를 위한 생산에 돌입했다고 14일 밝혔다.

렉스틸 바이오 코트는 ‘바이오 코트 프리미엄’과 ‘바이오 코트 마이크로벤’ 등 2개 제품군으로 구성됐다. 각각 국내 항균인증 기관 FITI시험연구원과 세계 1위 항균 솔루션 업체인 마이크로벤에서 인

증을 받고 마크를 획득했다.

렉스틸 바이오 코트는 기존 항균 제품들과 달리, 생활 환경균에 대한 항균성뿐만 아니라 탈취 및 항곰팡이 효과, 반영구적 살균 효과, 낙서 방지 기능 등을 추가해 차별성을 강화했다. 또 특수 세라믹 첨가제를 사용해 인체에 무해한 안정성도 확보했다.

바이오 코트 제품은 세계 최초로 항균 엘리베이터 방화문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일반 건축 내장재, 제약회사, 반도체 공장, 식품 공장 등 생활과 밀접하거나 세균에 민감한 공간에 폭넓게 적용된다. 특수 처리를 통해 단색뿐만 아니라 다양한 패턴의 프린트가 가능해 디자인

‘렉스틸 바이오 코트’ 론칭 이달 판매 위해 양산 돌입

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한국을 포함한 태국, 중국, 영국, 호주 등 5개국의 10여개 고객사 공급을 시작으로 국내의 시장에서 항균 컬러강판 판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U+우리집IoT’ 유튜브 조회 2200만건 돌파

LG유플러스 캠페인 광고 동영상

LG유플러스는 ‘U+우리집IoT’ 캠페인 영상이 지난달 론칭 후 유튜브 조회수 2200만건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디지털 영상은 침대에 누워 잠들기 전 불끄기를 서로 미루는 할머니, 할아버지 모습을 보던 손녀가 ‘우리 잔다’라고 말하자 불이 꺼지고, 가슴기가 켜지는 모습을 담은 ‘우리 잔다’ 편 등 총 7편이다.

가족 구성원이 각자 상황에 맞게 말로 제어하는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기능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준다.

특히 이번 U+우리집IoT 시리즈는 동일한 편의 영상을 중복해 보여주지 않고 다음 편을 차례로 보여주는 유튜브의 VA S(Video Ad Sequencing) 툴을 이용했다. 그 결과 첫 번째 편 영상을 본 시청자의 87%가 두 번째 편의 영상을 시청한 것



LG유플러스 ‘U+우리집IoT’ 캠페인 이미지.

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극장 시설과 연동한 U+우리집IoT 광고 캠페인도 열었다. 이 캠페인은 영화 상영 직전 극장 조명이 꺼지는 상황을 활용해 마지막 에티켓 광고에서 ‘클로바, 영화관 불 꺼줘’라고 음성이나 화면 불이 꺼지는 상황을 연출한다.

LG유플러스는 영화 시작 전 따뜻한 관객들을 위해 색다르고 재미있는 IoT서비스 광고를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북한 인프라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민간차원 자원조달 필요... 대출 회수장치도 필수

KDB미래전략연구소 보고서

자체적 개발자금 조달 기반 구축
금융시스템 재구축 작업도 과제

한반도 화해 분위기로 대북제재가 풀리고 북한개발이 본격화되면 관련 자금 수요도 급증할 전망이다.

특히 북한 내 인프라 구축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남북협력기금이 필요할 수 있는 만큼 민간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KDB미래전략연구소는 14일 '북한 내 인프라 개발 추진 시 민간 자원 조달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북한개발을 위해서는 민간 차원의 자원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며 "특히 정치적 이벤트가 발생해 사업이 중단될 경우 대출금 회수를 보장할 수 있는 위험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 인프라 개발과 관련해서는 남북협력기금상 '사회간접자본시설자금대출' 제도가 있다. 그러나 소요재원의 추

정규모 등을 감안할 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영석 KDB미래전략연구소 통일사업부 연구원은 "개발 초기에는 국제사회로부터 무상원조나 양허성 차관 등 공적개발원조(ODA)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북한 인프라 전반의 낙후수준 등을 감안하면 이마저도 부족할 것"이라며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자체적으로 개발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인프라 개발에 주로 활용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은 위험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북한 같이 정치적 위험이 큰 국가의 경우 대출금 회수 등 위험관리방안은 필수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위험이 큰 국가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는 국제투자 보증기구인 MIGA(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등을 활용한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금융 시장에 편입되어 있지 않아 이런 국제 기구를 통한 정치적 위험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 연구원은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큰 북한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프라 개발 프

젝트의 경우 사업 중단 등에 대비한 위험관리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며 "철도, 도로 등 인프라 개발 관련 토지사용료의 자본금 출자나 해당 출자금 우선 집행 등 북한의 능동적인 참여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2010년부터 국가경제개발 10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개발비용의 외자유치를 적극 추진했지만 대북제재 등으로 현재까지 이렇다 할 실적은 없는 상태다.

금융연구원 이윤석 선임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토록 신용등급이 부여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 신용등급을 획득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노력들도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 연구위원은 "북한 인프라 투자 등 경제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자원조달에 우리 금융회사들이 자금을 지원하는 것 외에 북한의 금융시스템을 보다 시장 친화적인 시스템으로 재구축하는 작업도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북한의 경제개발구 유형별 구분〉 /자료=금융연구원

구분	중앙급	지방급
종합형	신의주국제경제지대	압록강, 만포, 청진, 혜산, 경원, 강남
전문형	공업개발구	위원, 현동, 흥남, 청남
	농업개발구	북청, 어랑, 속천
	관광개발구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무봉국제관광특구
	수출가공구	진도수출가공구
	첨단기술개발구	은정첨단기술개발구
녹색시범구	강령국제녹색시범구	



14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일대에서 북한 군사들이 근무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지난 11일 진행된 KB국민은행-KB증권 복합점포 개점행사에서 김운태 KB국민은행 대전·충남지역영업그룹 대표(왼쪽 두번째), 이형일 KB증권 WM총괄본부장(오른쪽 두번째) 및 임직원들이 축하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KB금융 '은행·증권 복합점포' 신규 오픈

국민은행 불당동점·증권 천안점 이전

KB금융그룹은 지난 11일 KB국민은행 불당동지점과 KB증권 천안지점을 동시 이전해 은행·증권 복합점포를 신규 오픈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KB금융은 은행·증권 윈스톱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점포를 총 53개로 확대했다.

이번 복합점포는 KB금융이 충남지역에서 PB센터가 아닌 일반 영업점 형태로 오픈하는 첫 번째 복합점포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52개의 복합점포를 운영 중인 KB금융은 올해 권역별 지방대도시 중심의 복합점포 커버리지 확대를 통해

고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복합점포에서는 고객의 자산을 통합적으로 분석해 고객의 투자성향과 필요에 맞는 최적의 종합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고객은 은행·증권 점포를 따로 방문할 필요 없이 복합점포에 마련되어 있는 공동상담실에서 은행과 증권 PB의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은행·증권의 우수PB가 하나의 팀이 되어 다양한 은행·증권의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고, 부동산 투자자문, 세무 컨설팅, 해외주식 세미나 등 고객의 수요에 맞는 자문컨설팅도 제공하게 된다. /안상미 기자

삼성카드-토스 제휴카드 'Toss taptap S' 출시

삼성카드가 간편송금운영업체 '토스'와 전략적 업무 제휴를 맺고 제휴카드상품인 'Toss taptap S'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휴를 통해 두 회사는 역량을 활용해 서비스 연계를 통한 회원 확대 및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략적 업무 제휴의 첫 결과물인 'Toss taptap S'는 삼성카드의 taptap

브랜드 상품을 토스 앱에서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토스"와의 제휴를 통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들을 선보일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향후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미래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5@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작년 446억 사고 예방

전자금융거래 접속정보 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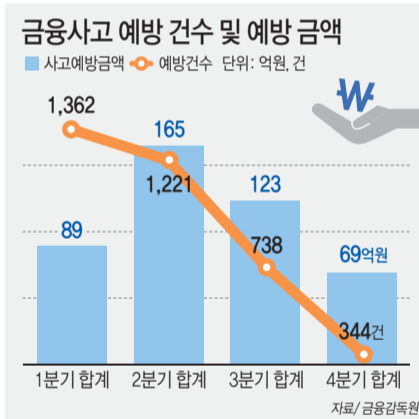
사고유형 탐지 등 고도화 추진 계획

지난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446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은행과 증권회사의 FDS 운영을 통한 사고예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사고예방 건수는 3665건, 금액은 445억8000만원이라고 14일 밝혔다. 1개사 기준으로는 연평균 79.6건, 9억 7000만원의 예방 효과가 있었다.

FDS는 전자금융거래에서 생성되는 접속정보, 거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상금융거래를 탐지 및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2014년부터 은행(20개사)과 증권회사(26개사)가 구축해 운영 중이다. 증권사보다는 이체거래가 많은 은행에서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높았다.

은행의 사고예방 건수는 3588건으로 429억7000만원 규모다. 1개사 기준 연평



균 179.4건, 21억5000만원의 금융사고를 예방했다.

특히 실적이 높은 4개 은행은 1개사 기준 연평균 655.3건, 94억4000만원의 금융사고를 예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권회사는 사고예방 건수 및 금액이 77건, 16억1000만원이다.

탐지 정확도 측면에서는 평균 예방률 95.4%, 미탐률 2.3%, 탐지 후 사고율은 2.3% 수이다. 이상금융거래 시도를 효과

적으로 차단 및 예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보안원이 운영하고 있는 이상금융거래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공유한 건수는 956건이다. 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한 금액은 198억6000만원으로 전체 사고예방 금액의 44.5%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신종 사고유형을 탐지할 수 있도록 FDS를 고도화하겠다"며 "이와 함께 FDS 운영 관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상금융거래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금융회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정보 공유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소비는 금융회사가 자금이체 관련 추가인증을 요청하는 경우, 본인 이 진행 중인 거래인지를 확인 후 추가인증을 해야 한다"며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인증서·현금카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신한銀-신한베트남銀 현지 경제전망 세미나 개최

신한은행은 신한베트남은행과 공동으로 베트남 현지에서 11일부터 이틀간 '2018년 하반기 글로벌 및 베트남 경제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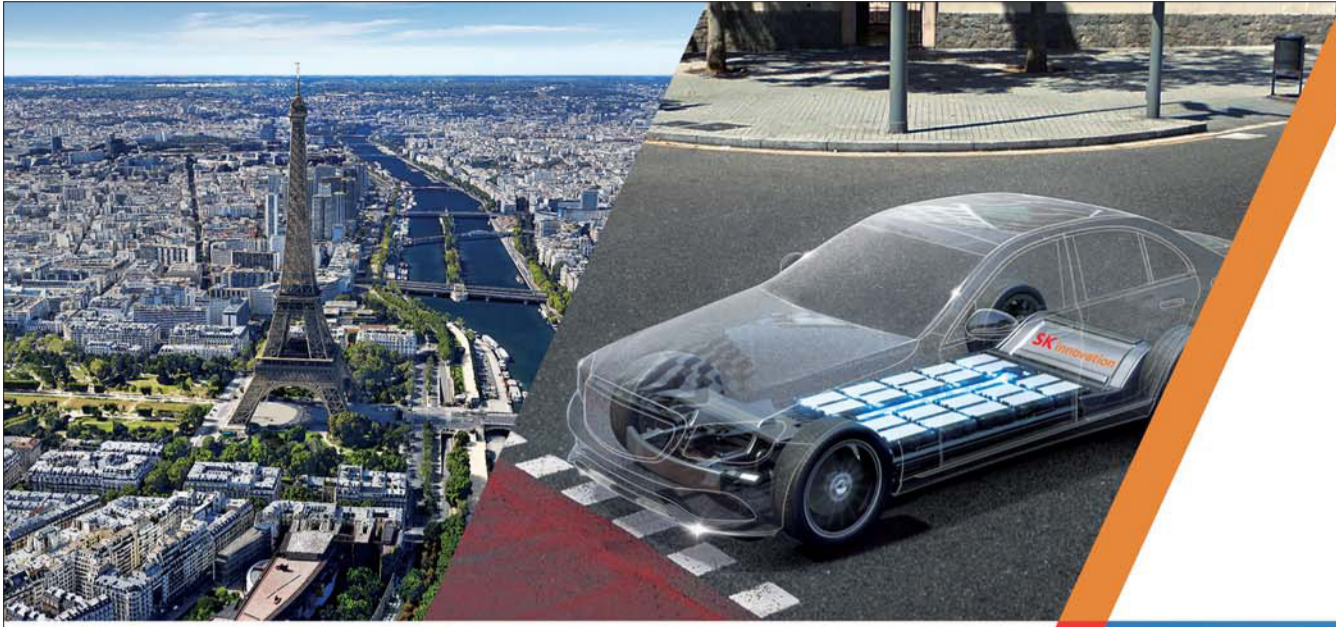
호치민과 하노이에서 한인 기업가와 근로자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한인상공연합회와 공동으로 주최되었으며, 베트남 및 글로벌 경제 전망과 세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내용으로 2시간반 동안 진행됐다.

베트남을 비롯한 신흥국 중심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기업인과 근로자들은 이번 세미나를 통



베트남에서 열린 '2018년 하반기 글로벌 경제전망 세미나'. /신한은행

해 베트남 시장에 대한 전망과 현지 경제 동향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사업계획 수립과 투자결정에 많은 도움을 받았을 수 있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유럽의 전기차도 이노베이션한다

SK이노베이션 고효율 전기차 배터리 장착

중국의 화학도 이노베이션한다

SK이노베이션 한중 최대 합작 화학단지 개발



미국의 에너지도 이노베이션한다

SK이노베이션의 독자운영으로 미국 셰일가스 생산

러시아의 윤활유도 이노베이션한다

SK이노베이션 윤활유 러시아 평가 1위



세계가 이노베이션한다
SK 이노베이션한다
에너지·화학의 큰 그림을 그립니다



이노베이션

SK 에너지

SK 종합화학

SK 루브리칸츠

SK 인천석유화학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하나금융투자

필룩스 바이오부문 설명회

하나금융투자는 14일 하나금융투자 본사 3층 한마음홀에서 필룩스바이오부문 설명회 및 기업 IR을 실시했다.

설명회는 신규 바이오 기술 개발과 파이프라인 확보 및 인수를 통해 바이오 부문의 사업을 확장하는 필룩스에 대한 투자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대신증권

'인버스 2X 니켈 선물' 상장

대신증권은 14일 런던금속거래소(LME)에 상장되어 있는 니켈선물의 일일 등락률을 -2배 추종해 구조화한 '대신 인버스 2X 니켈 선물 ETN(H)'을 신규 상장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향후 니켈가격 하락을 전망하는 국내투자자에게 유용한 상품이다. 최근 니켈 시장은 단기금리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와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통화 긴축 그리고 글로벌경기 둔화 우려로 가격조정이 예상된다.

이 상품은 환헤지형 상품으로 환율 변동이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만기는 5년이며, 연 1.5%의 제비용이 발생한다.

신한금융투자

'금' 투자하는 레버리지 ETN

신한금융투자는 금에 투자하는 레버리지 및 인버스 레버리지 ETN을 14일 신규 상장했다.

이번에 상장한 '신한 레버리지 금 선물 ETN', '신한 인버스 2X 금 선물 ETN'은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거래되는 금 선물 가격의 일간 수익률의 2배, -2배를 각각 추종하는 상품으로 DJCI 2X Leverage Gold TR 지수와 DJCI 2X Inverse Gold TR'을 기초지수로 한다.

신한금융투자는 가장 많은 농산물 및 원자재 ETN 상품을 시장에 공급 중이며 금 선물, WTI원유, 다우존스, 미국달러, 은 선물, 천연가스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및 인버스 레버리지 상품으로 투자자들이 기초자산의 상승과 하락 모두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증권사, 올 실적 '순풍'... 낮은 ROE는 숙제

(자기자본이익률)

개인 주식 활성화로 거래대금 상승 신용거래용자 사상 최대치 경신 등 10년째 제자리걸음 ROE 개선 필요

<주요 증권사 2분기 실적 추정치>

(단위:억원, %)

Table with columns: 종목명, 2017년 2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2018년 2분기 추정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전년동기(%)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Rows include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한국금융투자, 키움증권, NH투자증권.

*IFRS 연결기준, 컨센서스는 추정기관수 3곳 이상. /자료=에프엔가이드

식시장 일평균 거래대금은 14조9916억원으로 올해 1월(15조8000억원)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많은 규모를 기록했다.

아울러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1일 기준 신용거래용자는 12조 623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55.5% 증가했다.

상반기간별에 따라 연 6.65%~9.44%에 달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셈이다.

실제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미래에셋대우, 키움증권 등은 신용거래용자 증가 덕을 토포했다. 이들의 1분기 이자 수익은 각각 684억원, 28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0%, 35.10% 늘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해가는 증권업계지만 마냥 박수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10년째 제자리걸음하는 ROE 때문이다. 자본시장연구원 따르면 자본규모가 3.6배 늘어나는 동안 당기순이익은 2007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증권사들은 2분기에도 호실적을 이어갈 전망이다.

최근 개인 주식거래가 활성화된 데다 신용거래용자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어 이에 따른 수수료 수익이 기대된다. 하지만 10년째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자기자본이익률(ROE·당기순이익/자본총계)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가 증권사 3곳 이상 추정치가 있는 증권사 5곳(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삼성증권·한국금융투자·키움증권)의 2분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순이익은 총 588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4%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증권사의 실적 상승세를 떠받치는 건 급증한 개인 투자자 주식거래대금이다.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지난달 주

지방선거도 북미정상회담도 '끝'... 주택 공급 기지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분양 재개 전망 이번주 성적이 향후 바로미터 될 듯

<5대 광역시 여름(6~8월) 주요 분양 단지>

Table with columns: 사업명, 위치, 총가구(실), 분양시기, 건설사, 문의. Rows include 대구 연경 아이파크, 동래3차 SK뷰, 중구 복산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계림7구역 두산위브, 동래 래미안 아이파크.

/자료=부동산114 및 각사

'북미정상회담', '6·13 지방선거' 등이 끝나면서 아파트 분양물량이 대거 쏟아질 예정이다.

봄철 성수기 동안 건설사들은 분양 대행사 건설업 면허 취득 및 대형 이슈로 분양 시기를 늦췄다. 분양 성수기를 허송세월한 건설사들은 공급을 쏟아낼 데세다. 지난주 2000여가구의 아파트를 내놓았던 건설사들은 당장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자이'를 비롯해 경기도 김포 고촌읍 '캐슬앤파밀리에시티2차', 고양시 동산동 '삼송더샵(오피스텔)' 등 8곳을 준비 중이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6~8월에 전국에서는 8만4516가구가 공급된다. 올해 전체 분양물량(42만548가구)의 약 20%다. 같은 기간 2015년(9만5778가구), 2016년(9만9084가구), 지난해(7만8237가구)보다는 6300여가구 증가한 수치다. 최근 건설사들이 각종 이슈에 묻혀 분양 성격 저조를 우려해 분양 시기를 늦췄다. 그러나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월드컵 기간에도 분양에 나설 전망이다.

이처럼 공급이 몰려 있어 향후 분양 성공 여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분양물량이 적지 않아 지역 및 입지, 상품 등에 따른 양극화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부 규제로 지방광역시에서도 청약자격 제한 및 대출, 전매제한 등과 보유세 인상 움직임도 부담이다. 또한 1순위 청약자 수 감소로 수요자들도 신중해지는 모습이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내 집 마련을 고려하고 있는 수요자라면 입지 및 상품, 추후 가치 등을 면밀히 고려해 옥석

을 선별해내는 작업이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일단 이번 주 분양 성적이 향후 청약 시장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주에는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자이' 48~118㎡, 1824가구 중 864가구(일반분양)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캐슬앤파밀리에시티2차' 74~125㎡, 2255가구 ▲경기도 용인시 동백동 '신동백두산위브더제니스' 69~84㎡, 1187가구 ▲경기도 고양시 동산동 '삼송더샵(오피스텔)' 59~84㎡, 318실이 관심 대상이다.

이어 여름 분양시장을 강타할 물량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이 6월 선보

이는 대구 연경지구 C-2블록 '대구 연경 아이파크' 84~104㎡ 792가구 ▲SK 건설이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서 선보이는 '동래 3차 SK뷰' 아파트, 999가구와 오피스텔 444실 ▲동부토건과 진흥기업, 효성 컨소시엄이 7월 선보이는 울산 '중구 복산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39~84㎡ 2591가구 ▲두산건설이 7월에 분양하는 광주 동구 '계림7구역 두산위브' 59~84㎡, 908가구 중 660가구(일반분양) ▲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7월에 공급하는 부산 '동래 래미안 아이파크' 59~114㎡, 3853가구 중 2485가구(일반분양) 등이 관심 대상이다.

/이규성 기자 peace@



광명 소하지구 개발사업 투시도. /롯데건설

롯데건설, 광명 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수주

총 공사비 약 4800억원 규모 KTX 인프라 활용 프로젝트

롯데건설은 지난달 31일 광명 역세권 일대의 KTX 인프라를 활용한 '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수주했다고 14일 밝혔다. 광명하나바이온이 발주한 이 사업은 총 공사비 약 4800억원(VAT 포함)의 복

합 프로젝트다. 광명 역세권 개발사업(광명시 일직동 89 일원)과 소하지구 개발사업(광명시 소하동 1344 일원)으로 구성됐다.

롯데건설은 시공 구간사(55%)로서 두산건설(45%)과 총 연면적 약 35만㎡ 규모를 공동 시공한다. 광명 역세권 개발사업은 지식산업센터와 대학종합병원, 기숙사, 근린생활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연면적

약 18만㎡ 규모로 개발되며, 중앙대학교 병원이 들어선다. 기숙사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을 분양대상으로 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광명 의료복합클러스터 사업은 광명시의 오랜 염원인 대학종합병원 유치를 이루어낸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첨단 의료 및 지식산업센터 수요가 충족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신화 기자 csh9101@

“北 비핵화 증명 때까지 대북제재 완화 없을 것”

폼페이오, 文대통령 예방
韓·美·日 외교장관 회담

“북미정상회담 과소평가는
민심의 평가와 동떨어진 것”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로 예방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1시간 동안 만나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공유하고 한·미간 공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일부 전문가들이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낮게 평가하는 것은 민심의 평가와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사용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한국 국민인데 그런 한국 국민이 북미회담의 결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인했다”며 그의지에 대해 굉장히 빠르게 크게 뭔가를 이뤄내고 싶어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과 문 대통령의 관계가 돈독하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긴밀히 협의해달라”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남북·북미 관계가 선순환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확실한 비핵화를 조

에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울러 문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은 한국전쟁 기간의 전사자 유해발굴 송환에 남북미가 공동작업하기로 의견도 모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문 대통령 예방후엔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통부 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열었다.

회의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마칠 타이밍의 시급성을 알고, 비핵화를 빨리 해야 함을 이해할 것으로 우리는 믿는다”고 밝혔다.

이는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 공약을 교환한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채택 이후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절차에 신속히 돌입하게 될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됐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북미정상회담은 양국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할 거대하고 역사적인 기회를 만들었다”며 “역사적으로 북미관계에서 큰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핵 신고 내용과 완전한 폐기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이 거기서 핵심적(central)”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물론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며 쉬운 과정은 아닐 것”이라고 언급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한 것이 증명될 때까지 유엔 대북 제재의 완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뿐 아니라 김 위원장과 만났을 때도 (비핵화 조치와 제재완화 등 보상의) ‘순서’가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안전한 비핵화 전에 경제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해 준 과거의 실수는 다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한다면 북한에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비전을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분명히 천명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는 더 강하고 안정적이며 부유한 북한을 그리고 있다. 북한이 전 세계와 통합된 모습을 그렸다. 김 위원장도 이런 비전을 공유했다”고 부연했다.

강경화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단’ 언급으로 논란이 야기된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한미동맹차원의 문제이고 동맹차원에서 군단국간 협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라며 “동맹의 문제는 철통 같은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모든 이슈를 다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노 외무상은 북미정상회담과 그 합의에 대해 “모든 대량파괴무기(WMD)와 모든 사정거리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CV ID를 통해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단히 어렵고도 중요한 프로세스의 시작”이라고 규정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자치구 기초단체장 선거 ‘더민주’ 압승

첫 강남구청장·송파구청장 탈환
강남 3구 중 서초 제외 24개구 승리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25개 자치구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서초구 한 곳만 빼고 나머지 지역에서 모두 승리를 거머쥐었다.

전통적으로 보수진영의 텃밭으로 여겨지던 강남 3구도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양상을 보였다. 민주당은 첫 강남구청장을 배출하고 송파구청장도 16년 만에 탈환했다. 자유한국당은 간신히 서초구청장 자리만 지켰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보수진영의 전통적 텃밭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 중 서초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24개구에서 승리를 거뒀다.

선거에 앞서 현재 구청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인 강남 3구와 중구, 중랑구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 중구, 중랑구, 송파구에서는 민주당이 한국당을 15~20%포인트 격차로 여유 있게 따돌리며

승리를 거뒀다. 5개 구 중 민주당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봤던 강남구에서도 정순균 후보가 한국당 장영철 후보를 5%포인트 앞서며 민주당 첫 강남구청장을 배출했다.

민선 1, 2기를 제외하고 3기 이후 모두 한국당 계열 정당이 차지했던 송파구청장도 16년 만에 탈환했다.

한국당은 강남 3구 가운데 2곳을 잃으면서 보수정당의 ‘강남불패’ 신화가 깨졌다. 지난 2006년 4회 지방선거 때는 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이 서울 구청장 25곳 전체를 석권했지만, 12년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그간 민주당은 전국적으로 보수텃밭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만큼 강남 3구를 씩씩이 하겠다고 기대해 왔다.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 역시 “민주당이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 문재인 정부에 확고한 기반을 만들어 주고, 동시에 서울시민 삶의 질도 확고히 바꿔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오진희 기자 valere@

서울-평양 등 北 도시들과 교류 박차

>> 1면 ‘3선, 박원순 서울시장’서 계속

박 시장은 또 ▲평양 그리고 북한의 다른 도시들과의 협력 추진 ▲노후건축물 안전 ▲자영업자 대상 카드수수료 인하 ▲미세먼지 해결 위한 8만대 전기자동차 보급 등 앞으로 펼칠 굵직한 시정 계획들을 소개했다.

북한과의 교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과 평양, 서울과 북한의 여러 도시들과의 협력 추진이 핵심이다. 박 시장은 “큰 틀에서 국방이나 안보와 같은 정부의 전선, 서울시가 시민들, 주민들의 삶에 관계된 것으로 추진코자 한다”며 “중양

정부가 큰 길을 뚫어 놓으면 서울시가 메워가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서울시장 선거운동 기간 중 발생한 용산상가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박 시장은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정책이 가진 한계들이 드러나고 있다. 형식적으로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큰 사고가 될 뻔한 아찔한 시간이었다”며 “시의 책임과 권한은 아니지만 소형건물 전수조사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재개발로 지정됐지만 추진과 해제사이에 결정되지 않은 곳을 빨리 결정하자고 오늘 간부회의를 통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오진희 기자·김현정 기자 valere@

당 대표직 사퇴하는 홍준표·유승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왼쪽)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13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공동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바른미래당 당사에서 선거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손진영 기자

개성 공동연락소 개소·긴장완화 논의

10년6개월만의 남북장성급회담

남과 북이 2007년 12월 이후 꼭 10년 6개월 만에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열고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울러 남북은 개성공단에 설치하기로 한 공동연락사무소의 임시 사무소 개소를 위한 협의도 착실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장성급회담의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은 전체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장성급군사회담을 되돌아보니 2007년 12월 이후 햇수로 11년만”이라며 “오랜만에 개최되는 회담인 만큼 성과 있게 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절기상 망종이었다. 아마 농사 일정상 가장 중요하고 바쁜 시기”라며 “특히 곡식의 종자를 뿌려서 가을에 수확을 준비하는 바쁜 시기인데 그런 시기에 남북 군사 당국이 한자리에 모여 가을수확을 기대하면서 이런 회담을 하게 된 것에 대해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한



14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김도균 남측 수석대표(오른쪽)와 안익산 북측 수석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또한 사자성어인 ‘졸탁동시’를 인용하면서 “밖에서는 어미 닭이 껍질을 쪄주는 노력, 안에서는 병아리가 깨고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합치됐을 때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온다는 의미인데, 우리 남과 북 군사당국이 협력, 합치해서 노력한다면 아마 좋은 결과를 충분히 맺을 수 있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육군 중장(우리의 소장)은 거친 풍파를 이겨내는 소나무 정신을 거론하면서 “우리 남남은 절대 역풍이 되지 말자. 오히려 선두주자가 되자”면서 “우리 회담이 판문점 선언을 이어간다는 정신으로, 회담 정신은 소나무 정신으로, 회담 속도는 만리마속도로, 회담 원칙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역사사지의 원칙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김승호 기자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8-636호(2018.2.13)



- ☑ 암에 걸리면 **실직**할 수도 있잖아요?
- ☑ **치료비**가 훨씬 **비싼 암**도 있다던데?
- ☑ **60세** 넘어 **암** 걸리는 사람 참 많거든?

그래서, 저 박상원과 라이나생명이 튼튼한 암 보장을 선언합니다!

[라이나생명(무)플러스암보험(갱신형)]

암, 치료법이 좋아지는 만큼
대비해야 할 비용도 늘었습니다.
비급여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도
생각한다면 든든한 보장의
라이나플러스암보험에 지금 전화주세요!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



박상원 / 생명보험판매자격보유

• 본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암 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임 • 기존보험 계약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람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음



24시간 상담 신청
지금 전화 주세요

080-763-7070

호남에 분 민주당 바람, 광주는 '태풍' 전남은 '약풍'

(弱)

전남 22곳 중 '8곳' 무소속·평화당
덧발 전남서 '묻지 마 투표' 없었다
막판 네거티브 전략 부작용 평가도

“광주는 이번이 없었지만 전남은 야권의 선전세가 두드러졌다.”

6·13 지방선거 결과 광주는 시장과 5개 구청장 모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몰표로 압도했다. 전남은 22개 지역 중 8곳(36.4%)에서 야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앞서면서 여당이 예상 밖으로 고전했다. 광주에서는 광역, 기초의회도 민주당 쏠림 현상이 두드러져 향후 지역 정치 재편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광주 서구갑과 전남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재선거 2곳은 민주당이 싹쓸이해 광주·전남 지역구 의원 수를 1명에서 3명으로 늘렸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현황에 따르면 민주당은 80%를 웃도는 압도적 고공 지지율을 바탕으로 광주시장과 구청장 5곳을 싹쓸이했다.

민주당 이용섭 광주시장 후보 득표율은 84.07%에 달해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 지었다.

광주 5개 구청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5명의 후보가 53~7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동구청장은 임택 후보가 53.92%, 서구청장과 남구청장은 서대석 후보와 김병내 후보가 66.61%와 68.85%를 득표했다.

북구는 문인 후보가 77.21%로 5개 구청장 중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고 광산구는 김삼호 후보 75.82%로 야권과 무소속 후보를 여유있게 제쳤다.

광주시의원 23명, 5개 자치구의원 68명도 민주당이 거의 독식하다시피 해 광주 지방의회 일당 독주현상이 재현됐다.

국회의원 재선거구인 광주 서구갑은 민주당 송갑석 후보가 차지했다.

지역 정치 관계자는 “민주당이 공천과 경선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모습으로 실망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 유권자들은 그것에 주목하기보다는 문재인 정

김영록 전남지사



부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표로 보여준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반면 전남 지방선거에서는 무소속·민주당평화당 등 이른바 비민주당 후보들이 비교적 선전했다.

민주당이 우세를 보이긴 했으나 압승을 예상한 당의 기대에는 못 미치면서 ‘황금분할’이 이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남지사에는 김영록 후보,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에는 서삼석 후보가 당선돼 민주당 몫으로 돌아갔다.

민주당은 그러나 22개 시·군 기초단체장 상당수를 무소속·민주당평화당 후보들에게 내줬다.

민주당은 14곳에서, 무소속은 5곳에서, 민주당평화당은 3곳에서 단체장 직함을 달았다.

민주당 소속 당선자는 김종식(목포), 허석(순천), 강인규(나주), 최형식(담양), 유근기(곡성), 김순호(구례), 김철우(보성), 구중곤(화순), 이승욱(강진), 신우철(완도), 이동진(진도), 전동평(영암), 김산(무안), 김준성(영광) 등이다.

무소속 가운데는 권오봉(여수), 정현복(광양), 유두석(장성), 정종순(장흥), 박우량(신안) 후보가 여당과 다른 경쟁자를 물리쳤다.

평화당에서는 송귀근(고흥), 명현관(해

이용섭 광주시장



남), 이운행(함평) 후보가 당선됐다. 마지막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었던 목표의 경우 평화당 박홍렬 후보와 옆치락뒤치락 끝에 민주당 김종식 후보가 150표차로 힘겹게 이겼다.

하지만 전남 5개 시 단위 지역 가운데 여수·광양 등 동부지역 주요 거점 도시에서 단체장을 내준 것은 민주당으로서 뼈아픈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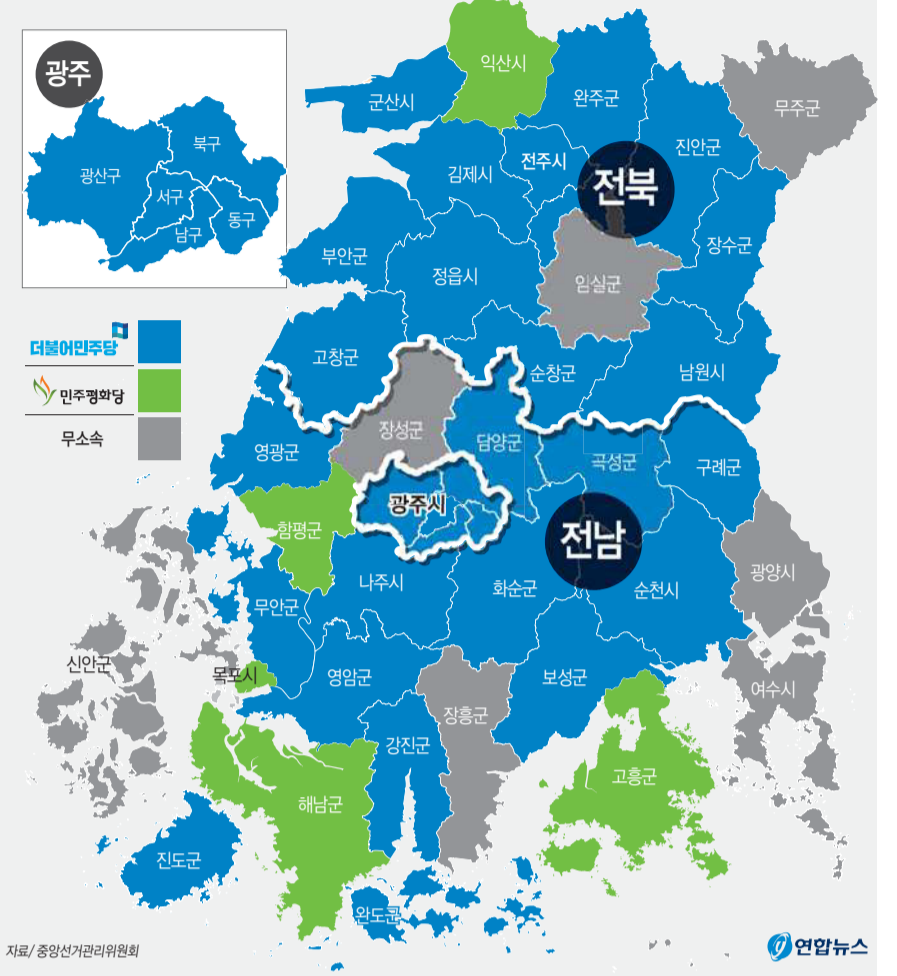
민주당은 전국 광역단체장 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적지 않게 고전한 셈이다.

민주당 텃밭이라는 전남에서 유권자들이 이른바 ‘묻지 마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도 있다. 이는 지역 민심에 이반한 일부 지역의 공천 잡음, 막판 열세·경합지역에서 구사한 네거티브 전략의 부작용이라는 냉혹한 평가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지역 정치 관계자는 “광주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압도적인 표차로 5개 구청장을 휩쓴 것과 비교하면 전남 지방선거 결과는 다소 예상 밖”이라며 “민주당은 물론 망신을 피한 평화당, 후보 구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은 바른미래당 등에도 시사점을 남긴 선거”라고 평가했다.

/광주·전남 무안=김남중·문성환·오인성·봉채환 기자 5555knj@metroseoul.co.kr

전북·전남·광주 6.13 지방선거 결과



학생인권조례 제정·무상급식 도입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3연임' 성공

3선 연임에 성공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자는 평교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직선 초대 교육감에 당선돼 광주교육의 혁신을 이끌어 왔다.

1950년 8월 충청북도 단양에서 태어난 그는 경찰 공무원인 아버지의 발령지를 따라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유년시절을 보냈다. 전남 영광, 목포, 신안 압해도 등을 거쳤고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해 광주 수창초등학교에 정착했다.

초등학교 때 시험지 대금을 내지 못했고, 광주서중 진학 후에도 제 때 등록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가정형편이 어려웠다.

광주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학교 매점에서 학용품과 간식을 파는 근로 장학생으로 일하면서 학비를 면제 받았다.

광주교육대에 진학한 후 1970년 초등교사로 발령된 뒤부터 교직을 전직으로 생각했고 평교사로 근무했다.

1987년 교육민중화운동에 뛰어들면서 잔잔했던 삶에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장 휘국 당선자는 전교조 전남지부 사무국장을 맡았고 전교조 결성을 주도했다가 해직되는 아픔을 겪었다.

1994년 중학교 교사로 복직해 전교조



6·13 지방선거 광주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장휘국 후보가 14일 오전 개표 결과 당선에 확실시되자 선거사무소에서 지지자들과 환호하고 있다./뉴스1

광주시부장을 역임한 그는 2003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았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광주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으로 8년 동안 활동하며 현장 교육을 넘어 교육 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키웠다.

장 휘국 당선자는 민선 1·2기 광주시교육감에 당선돼 촛나 없는 학교를 만들었고, 학생인권조례와 교원보호조례를 동시 제정했다. 5·18교육 전국화도 추진했으며,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도입해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등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김남중 기자

호남 첫 '4선' 기초단체장, 담양·목포서 탄생

최형식 담양군수·김종식 목포시장 유두석·이동진 당선자 '3선' 성공

6·13 지방선거 개표결과 광주·전남지역에서 처음으로 4선(選) 기초단체장 2명이 탄생했다.

주인공은 최형식 담양군수와 김종식 목포시장 당선자.

최 당선자는 이번에 당선되면서 연거푸 3선을 했으며 총 4번의 군수를 하게 됐다.

최 당선자는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서 제39대 담양군수로 당선됐으나 2006년 재선에 실패한 뒤 2010년(41대)과 2014(42대)년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군수에 당선됐다.

전남도의원 출신인 그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공천장을 받으면서 4선의 유리한 고지에 섰었다.

최 당선자는 “지금까지 쌓아올린 눈부신 담양 발전의 금자탑은 군민의 소통과 화합 없이는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편을 가르지 않고 모든 이를 감싸는

김종식 목포시장



표용의 리더십으로 대화합과 대통합의 역사를 쓰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민선 3·4·5기 완도 군수를 지낸 김종식 후보도 목포시장 선거에서 당선됨에 따라 기초단체장 4선이 됐다.

전국적으로 4선 단체장이 있지만, 김 후보처럼 자치단체를 바뀌가며 한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는 애초 방송사 출구조사에서 평화민주당 박홍렬 후보에 뒤졌으나 개

최형식 담양군수



표에서 막판 근소한 차이로 뒤집기에 성공했다. 무소속 유두석 장성군수 당선자와 민주당 이동진 진도군수 당선자가 3선에 성공했다.

유 당선자는 재선 연임 도전이지만, 민선 4기에 당선된 뒤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에 하차한 바 있어 사실상 3선 군수가 됐다.

야권 및 여권 등 정당 텃밭에서 무소속으로 3선에 성공해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기록됐다.

/전남 무안=김남중 기자

보성군 내일 다향올림촌 '감자축제' 열린다

보성군은 오는 16일 회천면 득량만권역 활성화센터에서 다향올림촌 '감자축제'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최대 감자 주산지인 회천면에서 열리는 이번 감자축제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인 다향올림촌 마을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희) 주최로 지역의 대표 농산물인 감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주민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흥겨운 풍물놀이와 보성소리 공연을

시작으로 감자음식 만들기 및 먹기 등 맛 좋고 영양 좋은 여름철 웰빙 특산물인 감자를 활용한 즐거운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킬 예정이다.

또한, 미꾸라지 잡기, 석교방향제와 비누 만들기, 녹차 족욕과 녹차용품 체험, 찻자리 등 다채로운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흥미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전남 보성=문성환 기자



좋은 콜레스테롤 올려주고

활성형 모나콜린K!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나쁜 콜레스테롤 내려주는

모나콜린K의 힘

홍국쌀 발효과정에서 분비되는 신비의 붉은 빛 물질 모나콜린K가 혈관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청소하고 혈관 청소를 돕는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콜레스테롤을 유지시킵니다.

기능 및 성분 함량 (1일 1캡슐 기준)

모나콜린K 6mg

마그네슘 91mg (부원료)

마늘동결건조분말 100mg (부원료)



“中 온라인 유통망 넓혀라”... 코오롱FnC-징동 ‘맞손’

(中 온라인쇼핑몰)

전략적 파트너십 맺고 공략 본격화
럭키슈에프 입점·성장 지원 나서

코오롱이 중국 온라인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이하 코오롱FnC)가 중국의 징동닷컴을 운영하는 ‘징동 북경 무역회사(이하 징동)’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중국 온라인 유통망을 공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코오롱FnC는 지난 8일 베이징 징동 본사에서 징동과 전략적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현재 중국 유통업계는 모바일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중국의 온라인 패션 시장은 이미 200조원 규모를 넘어섰고, 매년 4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 백화점과 같은 오프라인 매장 중심의 전략에서는 성장 속도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코오롱FnC는 중국 시장의 변화에 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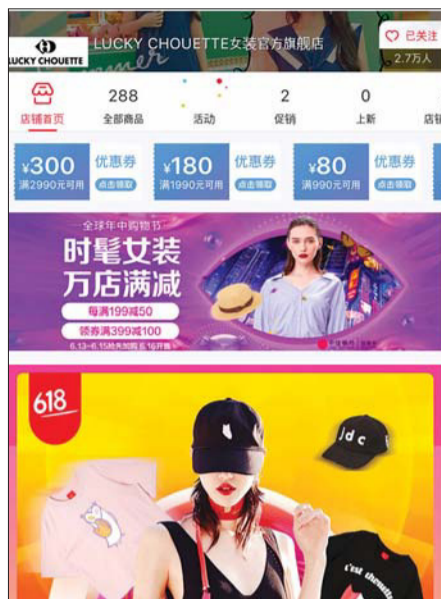


징동 후성리 수석 부회장(오른쪽)과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 운영인 총괄부사장.

르게 대응하기 위해 징동을 파트너로 선택, 전략적 협업을 통해 중국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MOU를 통해 양사는 두 개 영역에서 협력을 도모한다.

먼저 코오롱FnC는 영 캐릭터 캐주얼



코오롱FnC·징동닷컴 모바일의 럭키슈에프 페이지 이미지.

럭키슈에프를 필두로, 코오롱FnC의 브랜드를 차례로 징동닷컴에 입점시키고, 징동은 코오롱FnC의 브랜드들이 징동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럭키슈에프는 국내 브랜드 중에서도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강한 영 캐릭터 캐



/코오롱FnC

주얼로, 브랜드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국 고객들에게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한류 연예인들이 즐겨 입는 브랜드로 인지도를 쌓고 있으며, 럭키슈에프의 모델인 설리를 통해 더욱 입지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또 코오롱 FnC는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및 인디 브랜드가 징동닷컴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교두보 역할을 할 예정이다. 징동닷컴 플랫폼에 대한 운영 노하우를 쌓아 국내 브랜드 중 중국 시장에 적합한 패션 브랜드를 발굴, 징동닷컴 입점을 목표로 하며, 중국 온라인 내 브랜드링은 물론, 단기간 매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역할 또한 징동닷컴과 긴밀히 논의 중에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FnC측은 “코오롱FnC는 지속적으로 글로벌 패션 시장에 대한 문을 두드려왔다. 현재, 급변하는 중국 신유통에서 온라인 패션 시장은 효율적으로 중국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키(KEY)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코오롱FnC는 이번 징동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FnC내 다양한 브랜드를 중국에 진출시켜 긍정적인 결과를 내는 것은 물론, 중국에서 K패션의 대명사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ooul.co.kr

“손바닥으로 결제한다”... ‘핸드페이’ 도입

롯데하이마트

국내 가전유통업계 최초 서비스
정맥으로 결제하는 생체인증 방식



롯데하이마트가 국내 가전유통업계 최초로 ‘핸드페이’ 서비스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롯데하이마트

롯데하이마트가 국내 가전유통업계 최초로 롯데카드 ‘핸드페이(Hand Pay)’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핸드페이’ 서비스는 롯데카드 회원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롯데하이마트 대치점과 전국 55개 롯데카드센터에 방문해 정맥정보만 등록하면 하이마트 대치점을 비롯한 모든 ‘핸드페이’ 가맹점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핸드페이’ 서비스는 이용자의 손바닥 정맥 정보를 사전에 등록한 뒤 손바닥을 전용 단말기에 가까이 대는 것으로, 정맥정보를 식별해 결제하는 생체 인증 결제방식이다. 손바닥 정맥에 흐르는 혈관 속 헤모글로빈 성분을 패턴으로 저장해 2~3중으로 암호화해 활용한다.

특히 사람마다 정맥의 혈관 굵기나 모양, 선명도 등 정보가 다른 만큼, 손

가락 지문 정보로 인식하는 방식보다 약 100배 정확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정맥정보를 디지털 정보로 변환, 암호화해 금융결제원의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센터와 롯데카드에 분산 저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도용이나 해킹 위험도 적다. 아울러 신용카드 또는 간편결제를 등록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손바닥을 전용 단말기에 가까이 대

는 것만으로 결제가 돼 편리하다.

롯데하이마트 박경석 IT기획팀장은 “올해 4월 오프라인 매장에 음파결제 기술을 도입한 데 이어 이번에 정맥결제 기술을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롯데하이마트는 생체정보를 활용한 간편결제 등 신기술 활용범위를 확대해 안전하고 편리한 쇼핑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SPC삼립, 그릭슈바인 2공장 110억 투자... HMR 강화

(가정간편식)

그릭슈바인 공장 증설로 카테고리 확대

SPC삼립 육가공 브랜드 ‘그릭슈바인’이 가정간편식(HMR) 사업 강화에 나선다.

‘그릭슈바인’은 가정간편식 카테고리를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미트류’ 신제품은 ‘그릭슈바인 비프 함박스테이크’와 ‘그릭슈바인 비프 미트볼’ 등 2종(사진)이다.

‘비프 함박스테이크’는 청정 호수산 쇠고기와 국내산 돼지고기를 황금비율로 배합해 진한 육즙을 느낄 수 있으며 데미그라스 소스를 넣어 감칠맛을 더했다. ‘비프 미트볼’은 큼직한 미트볼에 토마토와 양파를 갈아 만든 소스를 곁들여 새콤



달콤한 풍미가 특징이다. 별도의 조리 없이 전자레인지에 데워먹을 수 있어 반찬이나 간단한 맥주 안주로 손색이 없다.

각 제품은 3개씩 날개 포장되어 있으며, ‘이지 오픈’ 포장 처리 방식을 적용해 손쉽게 개봉 가능하다. 권장소비자 가격은 7990원으로 전국 홈플러스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 7월 13일까지 4990원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한편 SPC삼립은 냉동 제품 생산라인 확보를 위해 충남 서천에 위치한 그릭슈바인 제2공장 증설 투자에 110억 가량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지난 11일 공시했다.

이번 증설로 그릭슈바인 공장은 신규 냉동 설비를 갖춰 패티류, 튀김류 등의 냉동 육가공 제품을 연간 3000t 규모로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공사는 2019년 초 완공 예정이다.

SPC삼립 관계자는 “그릭슈바인 공장 증설을 통해 냉동 제품 카테고리를 확대해 육가공 사업 매출을 2022년까지 1100억 달성할 계획”이라며 “HMR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해 글로벌 종합식품회사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븐일레븐-배달의민족 ‘킵커피’ 2종 출시

O2O 기반 차별화 PB상품 판매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배달의민족’과 협업해 이색 컵커피 ‘주문하신 아메리카노/카페라떼’ (사진)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세븐일레븐은 지난해 11월 배달 앱(A PP)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함께 O2O 기반의 차별화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세븐일레븐은 우아한형제들과 함께 유음료, 스낵, 비식품류 등



전반적인 카테고리에서 배달의 민족 문구와 디자인을 활용한 차별화 PB상품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김민서 기자

코카콜라, 조지아 고티카 콜드브루 신제품 선보

‘스위트 아메리카노’... 라인업 강화

코카콜라가 콜드브루 신제품 ‘조지아 고티카 콜드브루 스위트 아메리카노’ (사진)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지아 고티카는 기존 콜드브루 제품인 ‘조지아

고티카 콜드브루 아메리카노’, ‘조지아 고티카 콜드브루 카페라떼’에 이어 이번에 스위트 아메리카노 신제품을 출시하며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박인용 기자

디저트카페 ‘밀크홀 1937’ 종로점 오픈

서울유유, 유제품 중심 디저트 판매

서울유유협동조합이 유제품 전문 디저트 카페 ‘밀크홀 1937’ 종로점을 오픈한다고 14일 밝혔다.

15일 문을 여는 ‘밀크홀 1937’ 종로점은 5층 규모로 유제품을 중심으로 아이스크림, 커피, 베이커리 등 다양한 디저트 제품을 판매한다.

‘밀크홀 1937’ 종로점은 트렌디하고 모던한 카페 분위기로 연출되며 일부 공간을 할애해 서울유유 전시관을 마련하고 우유 현상화한 아이템을 비치하는 등 서울유유와 유제품 전문 디저트 카페의 색깔을 표현했다. 또한 바쁜 직장인과 학생들이 많은 종로 상권 특성에 맞추어 5층 커뮤니티 공간과 4층 컨퍼런스룸을 1인 1메뉴 주문 시 예약 사용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며 이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



서울유유협동조합이 유제품 전문카페 ‘밀크홀 1937’ 종로점을 오픈한다. /서울유유협동조합

하고 있다.

‘밀크홀 1937’ 종로점은 유제품 전문 디저트 카페답게 서초점 테스트 매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밀크티 4종(오리지널·라이트·스트로베리·말차)에 청량감이 돋보이는 민트레몬 밀크티가 추가되며, 종로점에서만 맛볼 수 있는 히든 메뉴 ‘블랙그레인 아이스크림’도 출시한다. /박인용 기자

근로 환경의 변화



한태영 변호사의

컴플라이언스 리포트

내달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국민의 휴식 있는 삶'과 '일, 생활의 균형'의 실현을 모토로 주 최대 52시간근로 규정 및 특례업종 축소, 휴일근로 가산할증률 명확화,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의 민간 기업 적용 등을 담고 있어 근로 환경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단계별로 적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미 시행 중이거나 곧 시행될 부분도 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변화된 근로환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장 및 휴일근로 포함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된다. 여기서 52시간은 휴일근로를 포함한 7일 기준 52시간으로서, 개정 전 법률이 12시간의 연장근로 및 휴일 당 8시간의 근로를 허용해 주당 최대 68시간을 허용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 규정은 기업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돼 300인 이상 기업은 내달 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단,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개정 전

근로시간 규정(최대 68시간 제한)이 적용되며, 2019년 7월 1일부터는 최대 52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또, 50인~300인 미만의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5~50인 미만의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8시간 특별연장근로가 한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둘째,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단축된다.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에 관한 법정 최대 근로시간이 현행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되며, 연장근로 한도도 주당 6시간에서 5시간으로 줄어든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셋째,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률이 명시돼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중복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입법적으로 제도화됐다. 즉, 휴일근로가 연장근로로 평가되더라도, 연장근로 가산율에 휴일근로 가산율이 중복되지 않도록 정리가 된 것이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의 경우 50%의 할증률이, 8시간이 초과된 휴일근로는 초과된 범위에서 100%의 할증률이 가산된다. 이 규정은 올해 3월 20일부터 시행됐다.

넷째, 근로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의 범위가 종래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됐다. 이에 따라 제외된 21개 업종은 사업별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제

한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1주당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을 받는다. 특례유지업종은 육상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의업이다. 이 업종들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해 특례를 적용하기로 할 수 있다. 특례를 적용받기로 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해서 최소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다섯째,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이 민간 기업에도 적용된다. 기업규모별로 300인 이상의 기업은 2020년 1월 1일, 30인~30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1월 1일, 5인~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주당 근로시간 제한을 비롯한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한 노동환경의 변화는 매우 급격하다고 느껴질 수 있다. 특히, 형사책임을 통해 강제된다는 점에서 사용자는 더욱 유의해야 한다. 특히, 점검 차원에서 회사에서 시행 중인 노동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과 조언을 받는 것도 좋다. 근로환경의 컴플라이언스를 통해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길 바라본다. /법무법인 바른

주파수 팔아 '방송' 지원하는 정부



기지수첩

김나인 (산업부)

15일 차세대 네트워크 상용화의 초석이 될 5G 주파수 경매가 열린다. 최저 입찰액만 3조3000억에 달하는 통신 업계 '빅 이벤트'다. 정부가 경매를 진행하는 이유는 국가의 핵심 자원인 주파수에 할당된 대가를 받기 위해서다. 이동통신사들이 경매를 통해 입찰된 가격으로 사용 기간 동안 주파수 할당 대가를 내면, 정부는 이를 세수로 확보할 수 있다. 공공재를 사용하는 만큼 일종의 세금을 받는 셈이다.

이동통신사업장에서는 경매가 지나치게 과열돼 경매대금이 치솟으면 과도한 비용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핵심 밑그림이 될 5G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5G 전국망 구축에 유리할 주파수를 확보하는데 사업자는 사활을 다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정부가 겪은 주파수 할당 대가는 어떻게 쓰일까. 2011년부터 열린 3차례의 주파수 경매에서 정부가 이동통신사에 받은 주파수 할당 대가는 모두 6조2410억원에 달한다. 이 대가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각각 55대45의 비율로 나눠서 귀속된다. 그러나 두 기금이 정작 소외계층 통신접근권 보장 등 통신 소비자를 위해 사용된 비중은 지난해 전체 1조3797억원 중 1.8%에 불과하다. 대부분이 통신과 무관한 방송 콘텐츠 진흥 사업이나 미디어 다양성 사업 등 방송 콘텐츠나 정보통신기술(ICT) 지원 용도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재주는 이동사가 부리고 돈은 지상파가 끌어 모으고 있다"는 불만 목소리도 나온다.

주파수비용이 과다해지면 결과적으로 이동통신사는 통신비를 높여 비용을 충당하는 수밖에 없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는 정부는 정작 주파수 대가를 소비자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서 되레 사업자의 목만 조르고 있다.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 업체인 무디스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선택약정 할인을 상향, 보편요금제 추진 등 요금인하 정책으로 SK텔레콤은 2019년 영업이익이 반토막나고, KT는 41%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신용등급 추락의 '경고등'까지 켜진 셈이다.

이번 5G 주파수 경매의 최종 낙찰가가 4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주파수 할당대가가 통신서비스 이용자 혜택으로 돌아가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다시 들여다봐야 할 때다.

/silkn@metroseoul.co.kr

인사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기획조정실장 김정환 △ 가치경영실장 김승일 △ 지식정보실장 서종국 △ 성과지원실장 최혜령 △ 창업사업화지원실장 이해령 △ 기술인증센터장 이종석 △ 국토인프라실장 김홍중 △ 도시건축실장 문주원 △ 철도실장 김성중 △ 교통물류실장 박남희 △ 항공실장 이은호 △ 기획1그룹장 정규원 △ 기획2그룹장 김윤순 △ 기획3그룹장 정시교 △ 기획4그룹장 이갑재 △ 기획5그룹장 최승욱 △ 기획6그룹장 박준우 △ 기획7그룹장 민성진 △ 기획8그룹장 백승훈 △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조대연 △ 감사실장 최봉림
- ◆홍극권 ◇ 신임 △ 준법감시인 겸 준법감시팀

장(상무) 윤준홍

부음

- ▲ 윤숙경 씨 별세, 이주영(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씨 장모상 = 13일 오후 2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연세병원 장례식장 302호, 발인 16일, 055-223-1000.
- ▲ 조홍래(전 연합뉴스 외신국장) 씨 별세 = 14일 오전 2시38분, 서울 노원구 공릉동 원자력병원 장례식장 지하 1층, 발인 16일 오후 4시30분, 02-970-1543.
- ▲ 태범엽씨 별세, 태성훈(양주시청농기계지원팀장)·태성란(신안유치원 원장)·태성희씨 부친상, 정인철(무지개농원 대표)·조영익(금융감독원

국장)씨 장인상, 임예순씨 시부상 = 14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9호실(15일 오전 9시부터 1호실), 발인 16일 오전 6시30분 ☎02-2258-5940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중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02)721-9851, 9826
독자센터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397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 2017년3월09일 제0071호



한국동서발전, 태양광 나눔협약 체결

한국동서발전은 '충남 태양광 나눔복지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동서발전이 충남지역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소를 기부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서발전을 비롯해 한국에너지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 서부발전, 중부발전,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5개 기관이 참여했다. /한국동서발전



NH농협은행, '블록체인 전문인력 특별과정 1기' 수료식

NH농협은행은 지난 12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동국대학교 경영관에서 'NH농협 블록체인 전문인력 특별과정 1기' 수료식을 개최하였다고 14일 밝혔다. (첫줄 왼쪽 여덟 번째부터) 김진선 동국대 경영대학원장, 이대훈 NH농협은행장, 이관제 동국대 부총장이 지난 12일 서울시 중구 소재 동국대학교 경영관에서 수료식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NH농협은행



신한카드, 에어비앤비와 디지털 생태계 강화 제휴

신한카드가 에어비앤비와 디지털 플랫폼 연계, 마케팅 역량 공유, 신금융·신사업 발굴 협력 등을 포함하는 디지털 에코시스템 제휴를 국내 최초로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양사는 에어비앤비 호스트 지원 금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신규 호스트 유치를 위해 협력하고, 신한카드 고객이 국내외 에어비앤비를 이용할 때 차별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의 공동 마케팅도 진행할 계획이다.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가운데)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카드



오비맥주, 몽골서 '카스 희망의 숲' 봉사활동

오비맥주는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6월 17일)'을 맞아 국제 환경단체인 푸른아시아와 함께 몽골에서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오비맥주 임직원, 푸른아시아 관계자, 몽골 대학생, 현지 주민으로 구성된 환경 봉사단 60여명은 지난 13일 예르든 숲 지역에 위치한 '카스 희망의 숲' 일대에서 조림활동을 펼쳤다. /오비맥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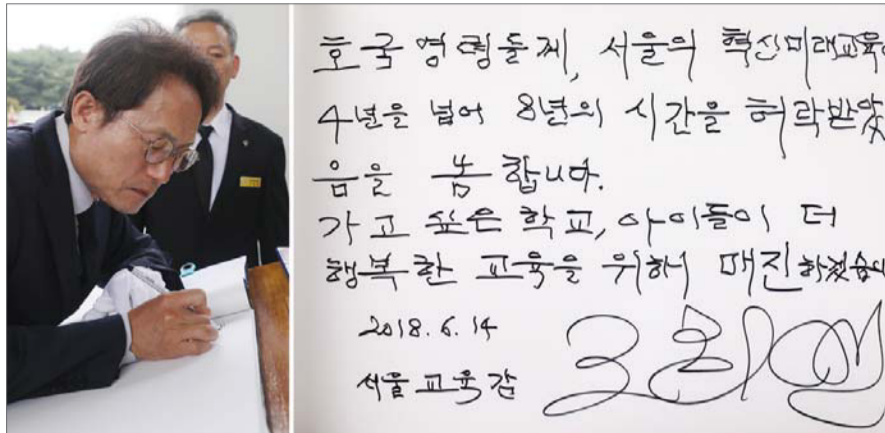


롯데주류, 강릉단오제에 7000만원 후원

롯데주류가 14일 강릉에서 열리는 '강릉 단오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후원금 7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릉 단오제'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축제로 롯데주류는 강릉공장이 위치한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인 만큼 매년 후원금을 전달해왔다. 롯데주류 이준홍 대표(왼쪽)와 강릉단오제위원회 조규돈 위원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주류

조희연 “서울, 혁신교육 4년 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재선 성공
외고·자사고 일반고 전환 압박
학교 간 영어교육 격차 해소 강조



당선후 첫 행보에 나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화와 분향후 방명록에 글을 남기고 있다.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했다. 지난 4년간 추진했던 조희연표 혁신교육이 지속될 수 있게 됐다. 뜨거운 감자인 외고·자사고는 일반고 전환을 통한 폐지 압박이 거세지고, 초3 이후부터 영어교육 등 공교육 강화 정책을 추진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14일 오전 재선 이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014년 이후 제가 서울교육가족들과 함께 추진해 온 서울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어갈 수 있게 된 점이 무엇보다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의 4년은 좀 더 대담한 혁신을 위한 행보를 할 예정”이라며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혁신교육을 실현하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4년간 추진해 온 조희연표 서울교육 혁신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외고·자사고’ 존폐 위기

서울 교육 정책 중 가장 뜨거운 감자인 외고·자사고 폐지 정책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재직 중은 물론 이번 선거 기간 중에도 특목고와 자사고가 설립 목적과 달리 입시교육기관으로 변질

됐고, 일반고 황폐화와 고교서열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실제로 교육부와 통계청이 공동 조사한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의 중3 학생 희망고교 유형별 사교육비를 보면 자율고(42만9000원), 특목고(46만6000원)가 일반고(27만원) 보다 월등히 많았다. 사교육 참여율도 자율고(76.3%), 특목고(79.4%)가 일반고(66%)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까지 특목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해 사실상 폐지하려는 정책을 폈지만, 해당 학교 반발 여론에 밀린바 있다. 다만 올해부터 일반고와 동시 선발키로 해 사실상 일반고 전환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다.

재선 성공에 따라 앞으로 4년 안에 특

목고 자사고 존폐 위기가 불가피해졌다. 조 교육감은 이번 선거에서도 일반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고입 동시 실시와 이중지원 금지,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공약으로 냈다.

조 교육감은 “지난 4년간 법률적 한계 등으로 자사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했다. 자사고·외고 선별효과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동시전형뿐 아니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이루도록 향후 정부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아 영어 방과후 수업 금지

초3 이후 영어 공교육은 강화된다. 조 교육감은 ‘초3부터 배워도 문제없는 영어 구사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을 약속했다. 원어민 영어교사를 추가 증원해 희망하는 공립학교에 전원 배치하고,

1 외고·자사고 폐지

2 영어 공교육 강화

3 전지역에 특수학교

영어 학습 오픈형 플랫폼을 구축해 학생들이 즐겁게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또 놀이 체험 중심의 영어수업 환경, 선행학습방지 강화,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지역맞춤형 학습안전망’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조 교육감은 “지난 4월 발표한 ‘서울 영어 공교육 활성화 계획’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해 학부모들의 우려와 지역·학교 간 영어 교육 격차 해소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전지역에 특수학교 설립

서울 전 지역에 특수학교 새로 들어선다. 서울 특수학교는 지난 2002년 경운학교 설립 이후 한 곳도 설립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2017년 4월 기준 특수교육이 필요한 서울지역 장애학생은 약 1만2800명이다. 이중 34.8%(4457명)만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다. 나머지는 특수학교에 빈자리가 없어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조 교육감은 재임 중 내년 3월 강서구 서진초, 서초구 나래초가, 내후년엔 중랑구 동진초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동대문구, 성동구, 중구, 용산구, 영등

포구, 양천구, 금천구 등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에도 특수학교를 설립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 반발에 대응해 주민 편의시설이 있는 랜드마크형 대규모 학교와 지역 밀착형 소규모 학교로 신설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와 2021년까지 특수교육실무사를 지속 충원한다.

이밖에 조 교육감은 전교조 합법화와 노조 전임자 휴직허가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전교조 합법화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노조전임자 휴직허가도 지방자치사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교육감에게도 자율권이 있다고 생각해 전향적 조치를 취했다.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해 전교조 전임자 휴직허용 의지를 드러냈다.

수능 절대평가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 수능평가방식은 학생들의 상대적 우열을 가리는 경쟁과 서열화, 선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과도한 입시경쟁 속에서 암기식, 문제풀이식 교육이 되풀이 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대학가 소식

‘부산대 금융대학원’ 첫 신입생 모집

부산대학교는 금융대학원이 오는 2학기부터 파생금융 석사과정을 개설하고 1기 신입생 25명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부산대는 지난해 금융위원회와 부산광역시 ‘부산 금융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기존 대학원 과정과 차별화된 금융대학원을 신설하고 이번에 첫 신입생을 선발한다.

금융대학원은 파생금융에 집중해 점차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빅데이

터 분석과 핀테크를 교육방향으로 설정했다.

금융수학, 고급경제학, 재무관리 등은 공통 필수 과목으로, 핀테크, 파생금융, 구조화금융 등은 전공 필수 과목으로 정했다.

교육 목적에 최적화된 첨단강의실, 금융실습실, 금융정보실, 금융라운지 등 교육 인프라를 갖췄고, 해외연수 지원, 성적 우수자 장학금, 특별장학금 등 다양한 교육 혜택을 마련했다.

승실대 오늘 제13회 박물관 아카데미 개최

승실대(총장 황준성)는 한국기독교박물관이 15일 오후 12시 교내 환경직기념관 송덕김덕윤예배실에서 ‘제13회 박물관 문화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문화아카데미에서는 부산대학교 지리교육학과 김기혁 교수가 ‘평양, 승실의 옛 공간’이라는 주제로 강의한다. 승실이 출범했던 개화기와 일제강점기 평양

도시 구조의 변화를 근대지도로 통해 살펴보고 광복 이후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결과 현재의 변모한 평양도시와 건축물을 시청각 자료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김기혁 교수는 한국고지도연구학회 초대회장장과 문화역사지리학회장을 지냈으며, ‘한국지명유래집-남북한편’·‘한국고지도집-국토의 표상’ 편찬위원장을 역임했다.

건국대 학생들이 ‘우산되는 가방’ 업사이클 사업화 지원

건국대 학생들이 버려지는 현수막으로 우산이 되는 가방을 만들었다. 대학 측은 관련 스타트업 도움으로 시제품 제작과 사업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건국대(총장 민상기)는 지난 11일 교내 학생회관에서 제1회 스타트업사이클링 콘테스트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업사이클(upcycle)은 업그레이드(upgrade)와 리사이클(recycle)의 합성어로, 버려지는 제품을 다시 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새 디자인을 더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활동을 뜻한다.

건국대는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제품을 시제품으로 만들고 전문가 멘토링 등을 통해 사업화 가능한 제품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용수 기자

논술전형, 수능 최저·논술만 ‘100%’ 선발

메트로가 꼭 짚는 대입전략

② 연세대

올해 특기자전형·논술전형 축소

학종 확대 ‘수능최저학력’ 적용

연세대는 올해 특기자전형과 논술전형을 축소하는 대신 학생부종합전형을 확대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활동우수형, 면접형, 기회균형으로 세분되는데 활동우수형으로 가장 많은 인원인 635명을 선발한다. 활동우수형은 1단계 서류(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100%, 2단계 서류 70%, 면접 30%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데, 국어, 수학, 탐구1, 탐구2 중 2과목 등급 합 4와 영어 2등급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전년도 내신기준 합격선은 인문계열



김명찬 종로학원 평가연구소장

1.67등급, 자연계열 1.38등급, 의예·치의예과 1.44등급이었다. 올해 모집인원이 161명 증가하여 합격선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서류평가에서 100% 정성평가를 적용하므로 전공적합성과 발전가능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면접형은 고3 재학생만 지원이 가능하고,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서류

40%, 면접 60%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1단계에서는 교과 50%, 비교과 50%로 학생부를 평가하는데, 교과성적은 정량평가, 비교과는 정성평가 방식을 적용하므로 교과성적의 영향력이 활동우수형에 비해 높은 편이다. 전년도 내신기준 합격선은 인문계열 1.35등급, 자연계열 1.31등급, 의예·치의예 1.05등급이었다.

논술전형은 전년 대비 40명이 감소한 643명을 선발한다. 아주 높은 수준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하는데, 인문계열은 국어, 수학, 탐구1, 탐구2 4과목 등급 합 7 및 영어 2등급, 자연계열은 4과목 등급 합 8 및 영어 2등급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학생부 반영을 폐지하고 논술 100%로 합격자를 선발하므로 내신성적 기준 합격선은 전년 대비 하락할 수 있다.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고 논술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으면, 내신성적이 저조한 학생도 합격이 가능하다.

‘학생부 개선’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본격화

대입 전형에 활용되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일정이 본격 시작된다.

교육부는 15일 서울 시청한화센터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1차 열린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열린토론회는 시민정책참여단이 본격 숙의 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정책숙려제 진행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

렴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오는 29일에는 2차 열린토론회가 열린다.

학생과 학부모, 교원, 대학 관계자 등 100명으로 구성되는 시민정책참여단은 2차례의 상호 학습과 대면 토론 등 숙의 과정을 거치고 이 과정에서 두 차례의 열린토론회 결과와 온-오프라인 학습과 토론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오는 7월 8일까지 학생부 개선에 관한 권고안을 도출해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열린토론회는 시민정책참여단 구성과 운영방안 안내,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

시에 대한 설명,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일반인이 참여하는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회는 사전 예약 절차 없이도 일반 국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행사 현장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민참여 정책숙려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 참여와 운영 과정의 공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구현하는 한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2018 여름방학! 신나는 가족뮤지컬! So~ Cool~
바다탐험대 옥토넛 · 불가사리의 모험



2018년 여름!
옥토넛이 돌아왔다!!

앵콜

바다 탐험대 옥토넛

2018. **7.13** 금 ~ **8.26** 일 **더케이아트홀(양재)**

주최/주관 크리에이티브 베라, (주)엠플러스 제작 크리에이티브 베라
 마케팅 (주)문화감성아츠 예매 인터파크티켓 1544-1555 문의 02-766-9001



스타인터뷰

정규 6집 두번째 앨범으로 돌아온 샤이니

10년 달려온 샤이니... “고유의 음악적 색깔 더 짙어져”

“샤이니”는 빛을 받아서 낸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대중들로부터 다양한 색을 받아 늘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할 수 있는 ‘샤이니’가 되고 싶어요”

10년 활동의 결과물로 ‘샤이니스러움’이라는 수식어를 만들어낸 그룹 ‘샤이니(SHINee)’가 한층 더 짙어진 음악적 색깔을 증명했다. 그룹 샤이니(은유, 키, 태민, 민호)는 지난 11일 오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정규 6집 두 번째 앨범 ‘The Story of Light’ EP.2 발매 기념 음악감상회를 열고 새 앨범을 소개했다.

샤이니 정규 6집 ‘The Story of Light’는 각기 다른 신곡이 5곡씩 채워진 총 3개의 앨범으로 구성, 지난 5월 28일 발매된 EP.1을 시작으로 11일 EP.2, 25일 EP.3가 순차 공개되며, 샤이니는 각 앨범의 타이틀 곡인 ‘데리러 가(Good Evening)’, ‘I Want You(아이 원트 유)’, ‘네가 남겨둔 말(Our Page)’로 릴레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지난 10년간 참신하고 트렌디한 음악과 독보적인 퍼포먼스로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다수의 히트곡으로 인기 행진을 이어 온 만큼, 이번 정규 6집 활동에 더욱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멤버 키는 “6집은 샤이니의 데뷔 10주

타이틀 ‘I Want You’, 중독성에 시원하고 서정적인 음악색 담아

“멤버간 유대감이 팀의 원동력 늘 새로운 트렌드 제시하고파”

년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고, 그동안의 샤이니 모습을 다 모아서 보여주는 앨범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6집을 세 앨범으로 나눈 이유는 오래 준비했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많았다. 외부에서 보이는 샤이니의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 에피소드 1이라면, 에피소드 2는 우리끼리의 샤이니를 보여주자는 의미를 뒀다. 마지막 에피소드 3는 미디엄 템포 위주의 음악으로 1, 2와는 또 다른 분위기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샤이니의 정규 6집 두 번째 앨범 ‘The Story of Light’ EP.2는 청량하면서도 아련한 감성이 돋보이는 트로피컬 하우스 장르의 타이틀 곡 ‘I Want You(아이 원트 유)’를 비롯해 ‘Chemistry(케미스트리)’, ‘Electric(일렉트릭)’, ‘Drive(드라이브)’, ‘독감(Who Waits For Love)’ 등 다채로운 매력의 5곡이 수록됐다. 타이틀



곡은 ‘I Want You’라는 흑 가사와 코러스 후반부의 중독성 있는 리드 신스 사운드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샤이니 특유의 서정적 분위기를 시원하게 풀어냈다.

“6집 첫 번째 앨범 타이틀 곡인 ‘데리러 가’와 장르적인 면에선 크게 다르지 않지만, 좀 더 시원하고 밝아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분위기가 신나기 때문에 저희도 웃으면서 부를 수 있는 그런 곡이에요”(키)

“노래가 시원하다 보니 안무도 시원시원하게 만들었어요. 기존에 저희가 보여드리지 못한 새로운 색을 보여드리려고

해요”(민호)

샤이니 내에서도 ‘열정맨’이라고 불리는 민호는 이번 앨범에 직접 참여해 본인만의 개성넘치는 랩을 추가하기도 했다. 민호는 “‘Chemistry(케미스트리)’라는 곡은 파워풀하고 다이내믹한 사운드를 가진 곡이다. 처음 들었을 때부터 좋아 랩 메이킹에도 참여했다. 서로 간의 ‘케미’에 대한 가사가 인상적이다”라고 말했다.

10년간 쉬지 않고 달려온 샤이니가 이뤄낸 결실은 결국 ‘샤이니스러움’이라는 수식어다.

“이 곡은 샤이니답다’, ‘샤이니스럽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저희를 어떤 색이라고 정의를 내리기보다, ‘샤이니는 샤이니 색이다’라는 고유명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샤이니’라는 말은 빛을 받아서 빛을 낸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대중들로부터 여러가지 색을 받아 나올 때마다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할 수 있는 샤이니가 되고 싶어요”(민호)

2008년 ‘누난 너무 예뻐’로 데뷔 후 지금까지 팀이 잘 이어져 올 수 있던 원동력으로 ‘멤버들 간에 쌓인 유대감’이라고 답한 샤이니는 앞으로의 10년도 멤버들과 함께 걸어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막내 태민은 “10년이라는 시간을 돌이켜봤을 때 ‘샤이니’는 자부심이다. 인생의 반을 멤버들과 함께 했는데, 오랫동안 쌓아온 유대감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싶다”고 미소지었다.

한편 샤이니는 앞서 발매된 첫 번째 앨범 EP.1을 통해 아이튠즈 종합 앨범 차트 전 세계 37개 지역 1위, 국내 각종 음반 차트 1위 등을 기록하는 등 화려한 컴백을 알린 바 있다. 14일 Mnet ‘엠카운트다운’을 시작으로 두 번째 타이틀곡 활동을 이어간다. /신정원 기자 sjw1991@metroseoul.co.kr

‘러시아 월드컵’ 개막... 韓, 스웨덴과 18일 첫 경기 “주말에 감성자극 힐링전시 보러갈까?”

24일 멕시코, 27일 독일과 경기

전 세계 축구팬들이 4년간 기다린 ‘2018 러시아 월드컵’의 막이 올랐다.

지난 14일 오후 11시 30분(이하 한국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2018 러시아 월드컵’ 개막식이 진행됐다.

이번 ‘2018 러시아 월드컵’은 개최국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A조 개막전을 시작으로 다음 달 7월 15일까지 32일 동안 총 64경기가 치러진다. 4팀씩 8개 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진행하며 각 조 1, 2위는 16강에 진출한 뒤 결승까지 토너먼트 경기를 치르는 방식이다.

한국은 독일, 스웨덴, 멕시코와 함께 F



13일 오후(현지시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베이스캠프훈련장인 상트페테르부르크 로모노소프 스타디움에서 가볍게 뛰며 몸을 풀고 있다. /연합뉴스

조에 편성, 18일 오후 9시 러시아 니즈니 노브고로드에서 스웨덴과 첫 경기를 펼

친다. 이후 24일 0시 러시아 로스토프나 도누의 로스토프 아레나에서 멕시코와 조별예선 두 번째 경기를 벌인 뒤 27일 오후 11시에는 러시아 카잔의 카잔 아레나에서 FIFA랭킹 1위 독일과 조별예선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한국을 포함한 출전국의 조별 예선은 6월 29일 마무리되고, 6월 30일부터 16강전에 돌입한다. 7월 6~8일에는 8강전이 열리고, 7월 11일과 12일에는 각각 4강전이 진행된다. 이후 7월 14일 오후 11시부터는 3·4위전이 진행되며, 결승은 7월 16일 0시 모스크바의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펼쳐질 계획이다.

한편 이번 ‘2018 러시아 월드컵’은 2006년 독일 월드컵 이후 12년 만에 유럽에서 열리는 대회면서도 동시에 사상 처음 동유럽에서 열리는 월드컵 경기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신정원 기자

‘르누아르: 여인의 향기전’ 인기

최근 5월 오픈한 전시 ‘르누아르: 여인의 향기전(사진)’이 방문객들의 발걸음을 기본 좋게 만들고 있다.

본다빈치뮤지엄 서울숲(갤러리아 포레)에서 전시 중인 ‘르누아르: 여인의 향기전’은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프랑스 화가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의 작품을 미디어아트로 재구성된 전시다.

어려운 집안 형편과 전갱터에서 친구를 잃는 힘들었던 삶과는 대조적으로 르누아르가 캔버스에 담은 여유로운 분위기의 풍경화,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들을 감상할 수 있다.

‘그림이란 항상 즐겁고, 유쾌하며, 아름다운 것이어야 한다’는 르누아르의 철학을 더 멋진 전시로 승화시킨 이번 ‘르누아르: 여인의 향기전’은 특히 젊은 커플에게는 감성 데이트, 인생샷 장소로 부각되는 것은 물론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는 전시로도 입소문을 타고 있다.

한편 르누아르의 작품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번 ‘르누아르: 여인의 향기전’은 10월 31일까지 본다빈치뮤지엄 서울숲(갤러리아 포레)에서 열린다. /신정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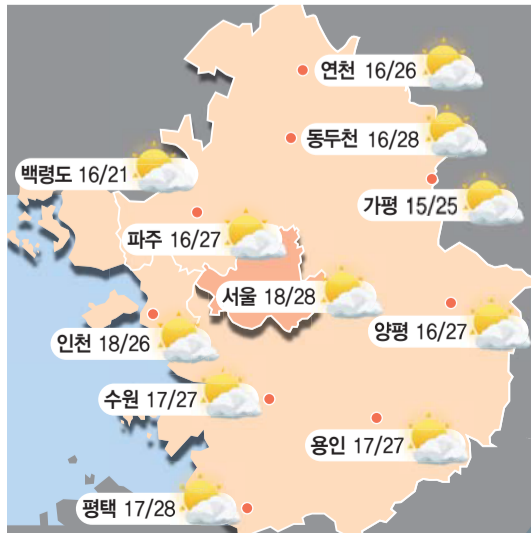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6월 15일
음력: 5월 2일

수도권 날씨
28~18°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뮤지션들의 유기견 돕기 콘서트 ‘안녕, 호수’

21일 CJ아지트 광흥창서 개최

국내 뮤지션들이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사는 유기견들을 돕고자 자선 공연 ‘안녕, 호수’를 기획했다.

오는 24일 오후 5시 CJ아지트 광흥창(마포구 신정동 소재)에서는 유기견 돕기 콘서트 ‘안녕, 호수’가 개최된다. ‘안녕, 호수’는 한 반려견으로 인해 시작된 공연으로, 조정치, 김미려 등 약 30여 명의 아티스트들이 흥대 앞에서 약 15년간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과 우정을 나누다 지

난 5월 11일 세상을 떠난 한 골든 리트리버 ‘호수’를 위해 기획했다.

개구무먼 김미려, 이경분이 공동 MC로 나서고, 가수 조정치와 정바비(가을방학), 팔라스윗, 박준명, 양양, TJ & Keko a, 그네와꽃 등 총 11개 팀이 선뜻 출연을 약속하며 이뤄졌다.

출연자들은 각자 호수와 기억, 에피소드를 관객과 나누며 ‘호수, 그리고 또 다른 호수가 돼줄 유기견들’을 위해 준비된 특별한 노래를 들려줄 예정이다.

/신정원 기자



금성당·사머니즘박물관에서 지난해 열린 '금성당제' 모습

유교 제례+무교 굿 '금성당제' 열린다

내일 은평 금성당·사머니즘박물관서

서울 은평뉴타운 아파트촌 한복판에 자리한 '금성당·사머니즘박물관'에서 16일 유교식 제례와 무교식 굿이 혼합된 '금성당제'가 열린다.

이 박물관은 본래 조선 후기 굿당의 모습을 간직한 한옥이었던 것을 지난 2016년 5월 무속유물 전문 박물관으로 재탄생시킨 곳이다. 개관 이후 매년 한 번씩 박물관의 전신이었던 굿당 '금성당'이 주신으로 모신 금성대군을 기리는 금성당제를 열고 있다.

'금성당'이란 명칭은 '금성대군'(1426~1457년)에서 유래한다. 금성대군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 심씨의 여섯째 아들로, 단종의 숙부인 동시에 세조의 아우다. 세조가 어린 조카인 단종을 핍박해 여러 곳에 유배를 보내는 과정, 금성대군은 단종 복위를 계획하다가 결국 사사됐다. 과거 단종의 유배지 중 하나였던 영주 등에서는 금성대군의 충의를 기려 대동놀이(가매)를 치러지고, 그를 신으로 모시며 마을 곳곳 금성당을 짓고 당굿을 행한 바 있다.

양종승 금성당·사머니즘박물관장은 "금성당제의 전통은 이 땅에 불교, 기독교, 도교, 유교 등의 외부 종교들이 유입

되기 전부터 우리 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려져 왔다"며 "그러면서 한국인의 종교심성 또한 잘 간직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례와 문화예술로 승화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16일 오전 9시께부터 시작되는 금성당제는 오후 5시까지 이어진다. 오전에는 ▲황토물림 ▲유교식 제례 ▲금성대왕신 맞이 등을, 오후에는 ▲서낭맞이 ▲금성왕굿 ▲단춧굿 등을 선보인다. 황토물림은 박물관 건물인 금성당 담장 네 귀퉁이에 금줄을 쳐서 해로운 기운의 유입을 막는 의식이며, 서낭맞이는 마을수호신의 뜻인 서낭을 모시고 전염병을 막고 지역민의 대동단결과 무병장수를 발원하는 절차다. 단춧굿은 민족시조인 단군신에 이어 고려 충신 최영장군 등을 모시는 곳이다.

양 관장에 따르면 금성당 건축물은 150여년 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조선시대 궁중에서 후원에 건립된 무속신당 중 오늘날까지 본디 터에 옛 모습 그대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신당이다.

양관장은 "금성당·사머니즘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신앙 유물은 한민족 역사와 문화를 살피게 하는 귀중한 문화유산의 자료일 뿐만 아니라 세계화 속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진정성 담긴 한민족의 문화재"라고 설명했다. /오진희 기자 valero@



돌고래의 '발리 슈'

14일 세계인의 축구 축제 '2018 러시아 월드컵'을 기념해 서울 강남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벨루가가 수조에서 축구공을 가지고 놀고 있다. 축구공을 수조에 넣은 것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내 동물들의 야생 습성을 잃지 않도록 다양한 행동을 유도하는 행동 풍부화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연합뉴스

서울 추진사업 담은 '서울백서' 발간

서울시는 오는 15일 지난해 추진한 정책 중 주요 사업 100개를 담은 '2017 서울백서'를 발간한다.

백서는 시정 분야를 안전한 도시, 따뜻한 도시, 꿈꾸는 도시, 숨 쉬는 도시, 열린 도시의 5가지 분야로 구분하고, 분야별로 주요 사업 100가지를 소개한다.

백서에는 다시·세운 프로젝트, 문화비축기지 등 서울시의 도시재생으로 탄생한 시민 공간과 유아시설 도시철도 개통, 다람쥐 버스 운행, 서울형 생활임금

제 시행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혁신 정책이 포함됐다.

도입부에서는 시민이 뽑은 '2017년 서울 10대 뉴스'를 통해 지난해 시민들의 공감을 얻은 정책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백서의 마지막 부분은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유익한 제도들을 소개한 '2018년 달라지는 서울생활'과 그동안 서울시에서 발행한 백서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백서로 찾아보는 서울시정'으로 구성됐다. /김현정 기자

몰려드는 관광객에 주민피해 북촌한옥마을 '쉬는 날' 지정

서울시, 주민피해 개선대책 시행
북촌로 11길 평일·토요일만 통행
지킴이 양성... 출입 제한 등 계도

서울시가 '관광 허용시간'을 도입해 북촌한옥마을 지키기에 나선다.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 시간에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서울시와 종로구는 주민 피해를 줄이고 정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북촌한옥마을 주민피해 개선 대책'을 내놨다고 14일 밝혔다.

대책안에 따라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북촌로 11길은 평일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에만 통행할 수 있다. 일요일은 '골목길 쉬는 날'로 지정돼 관광이 금지된다.

시는 우선 주민 주도의 관리 인력을 투입해 홍보·계도 활동을 펼친다. 향후 자율시행 효과를 분석, 이를 토대로 시간대를 조정하고 의무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단체관광객은 가이드가 동행하도록 해 관광 에티켓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끈다. 시는 '마을관광해설사' 등의 관리인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복을 입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스1

력을 지원한다. 특정시간대에 단체 관광객이 집중되지 않도록 사전 예약제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북촌한옥마을 인근의 교통정체를 막기 위해 주 출입구인 돈의미역 주변에 불법주정차된 관광버스를 집중 단속한다. 관광버스 승하차장을 지정해 단체관광객을 도보관광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북촌한옥마을 일대를 '집중청소구역'으로 설정해 쓰레기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쓰레기 수거횟수를 현행 1일 2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환경미화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전담 청소인력 2명을 상

시 투입해 골목길을 청소한다. 관광객의 노상광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70곳인 개방·나눔화장실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주민으로 구성된 관리인력 '북촌마을 지킴이'를 양성한다. 지킴이들은 관광 허용시간 이외 시간대에 관광객의 마을출입을 제한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 등 금지 행위를 계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와 관련회 시와 구는 오는 22일 주민 토론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안을 최종 확정해 7월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128억 '작통 골프의류' 제조·유통업체 적발

온라인서 33개 업체에 '위탁판매'
서울시, 상표법 위반 혐의 입건

국내에 유통되는 작통 골프의류의 80%를 제조·유통해왔던 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중국에서 128억원 상당의 작통 골프의류를 제조해 국내에 유통한 업주 A씨(42)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압수된 위조품은 총 8396점(정품 추정가 22억원)이다. 대포통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결과 확인된 거래액만 14억원(정품추정가 106억원)에 달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피의자 A씨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분석해 중국 공장의 위조품 공정 과정 동영상과 통화녹음을 확보했다. 원단값과 공임(인건

비) 등 제조원가를 직접 지출한 정황도 확인했다.

피의자 A씨는 중국에서 생산한 위조품을 카카오톡, 밴드 등 온라인을 통해 전국 33개 업체에 '위탁판매 방식'으로 유통해왔다.

피의자는 또 중국산 위조 신발에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라벨을 부착하고, 중국산 벨트에는 '메이드 인 재팬(Made in Japan)'을 새겨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했다.

판매상품을 '정로스(정품 로스·흠집 상품)'로 속여 팔고, 유명법인 대포계좌와 대포폰을 이용해 가짜주소로 반품 주소로 내세우는 등의 수법으로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해온 정황도 확인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상표법 위반행위를 본격 단속한 지난 2012년 이래 상표법 위반 사범 773명을 형사입건했다. 이를 통해 총 12만5046점, 정품 추정가 439억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해

폐기했다.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상표도용, 원산지 위반, 불법 다단계, 대부업, 식품, 보건 등 12개 수사 분야에 대한 범죄행위 신고·제보자를 대상으로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범죄 행위 신고는 민생범죄신고 앱(서울 스마트블라인드), 서울시 홈페이지, 다산콜센터,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안승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브랜드 상표 위조는 상거래 질서를 저하시켜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건전한 국내 관련 산업 발전과 국가 대외신인도를 악화시키는 불법 행위"라며 "지속적인 첩보 활동과 수사를 통해 중간업자, 위탁판매 업체까지 수사를 확대해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bhc본사, 위반 여지 있어"... 재조사 요청

점주들, 세종 공정거래위서 집회

치킨 프랜차이즈 bhc의 점주들이 14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집회를 열었다. 지난달 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총회 후 2차 집회다.

이날 전국 bhc 가맹점 협의회는 "(bhc)본사가 가맹점법 위반행위의 여지가 있다"고 말하며 공정위의 재조사를 요청했다.

협의회는 "지난 2015년부터 가맹본부는 '광고비'와 '가공비'라는 추가 비용을 붙여 가맹점에 공급했다"며 "외부에 노출

되면 곤란한 가공비 200원을 기존 광고비 200원에 포함해 광고비 400원으로 구성해 신신료 한마리마다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본사 정보공개서에 광고비 미징수 표기,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로 발급한 행위 등에 문제가 있다며 조사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사모펀드에서 운영하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를 본사의 수익성을 위한 도구로 취급한다"며 "가맹본부가 원·부재료를 최대한 싸게 사서, 가맹본부

에 비싸게 공급했다"고 말했다. 이날 가맹점주들은 점포의 매출원가율이 42%를 초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관측물품 비용을 가맹점에 게 부담시킨 행위 ▲점포 신규 개점 시 상권 쪼개기 ▲가맹점 휴무 운영시간 통제 ▲내부 게시판 글 전체 삭제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수익구조와 제품에 대한 합리적인 가격의 인식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바로 잡지 않으면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며 "외국계 사모펀드가 재매각에 나서면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장치도 없어 무기력하게 피해를 볼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산업]
‘LG G7 씽큐’ 써보니...
진화한 카메라에
웅장한 스피커 인상적
05



Life

[엔터테인먼트]
샤이니, 정규 6집
두번째 앨범 발표
“음악적 색 짙어져”
L6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여름=팔도비빔면’ 공식 만들어 낸 라면계의 이단아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17 팔도 ‘팔도비빔면’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여름이면 익숙한 팔도 비빔면 CM 송이다.

비빔국수를 집에서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팔도비빔면은 면을 익히고 차가운 물에 헹군 뒤 양념장을 넣으면 완성된다. ‘여름=팔도비빔면’이라는 공식처럼 1984년 출시 이후 국내 비빔면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원조 비빔라면이다. 경쟁사들은 타도 팔도를 외치며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지만 팔도비빔면을 넘어서기에는 살짝 부족한 느낌이다. 팔도비빔면은 소면과 유사한 얇은 면발과 사과 향이 첨가된 스프의 매콤·새콤·달콤한 3박자가 어우러진게 특징이다.

◆라면의 고정관념 깨·출시 후 11억개 판매
‘팔도 비빔면’은 출시 이후 33년 동안 11억 개가 판매되며 5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뜨거운 국물과 함께 먹던 라면의 고정관념을 깬 제품이다. 여름철 집에서 살아먹던 비빔국수를 라면으로 계량했다. 차갑게 먹는 라면시장을 처음으로 개척했다. 출시 당시에는 계절면 제품으로 여름철에만 한정적으로 판매됐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사계절로 판매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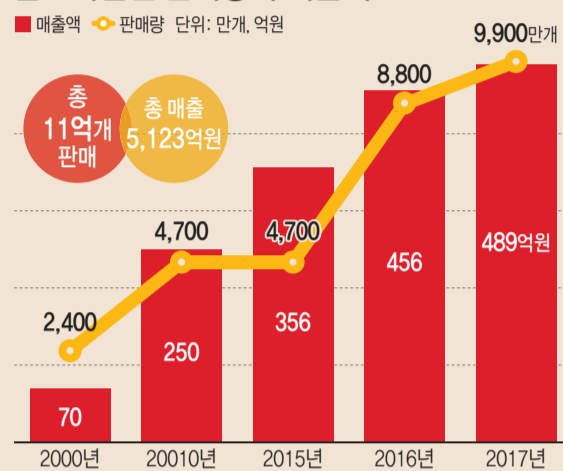
출시에 앞서 전국에 유명한 맛 집의 비빔냉면과 비빔국수 등을 연구하여 매콤, 새콤, 달콤한 황금비율 소스를 구현했다. 원재료를 그대로 갈아 만든 액상 스프 기술력과 최고의 원료를 사용한 것이 ‘팔도비빔면’의 성공 원인이다. 액상 스프의 경우 당시, 한국야쿠르트가 보유한 발효공학과 미생물공학에 관한 축적된 기술이 많은 도움이 됐다.

팔도비빔면 개발을 담당했던 연구원은 “새콤달콤한 맛을 개발하기 위해 비빔라면 맛집을 수없이 돌아다녔다”며 “당연히 모든 라면 스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지만 수없이 배합을 변경하고 테스트를 거치며 지금의 맛으로 대표되는 액상스프를 개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현재도 소비자들은 못 느끼지만 매년 배합비를 조정해 조금씩 변하는 고객들의 입맛을 맞춰간다”고 덧붙였다.

한편 팔도가 액상스프를 적용한 것이 비빔면이 처음이 아니다. 분말스프 중심의 라면시장에 차별화된 제품을 출시해야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1983년 ‘팔도 참깨라면’에 국내 최초 액상스프를 첨부했다. 액상스프의 역사만 30년이 넘는다.

비빔면은 가정에서 즐겨먹는 비빔소면을 좀 더 편리하고 맛있게 먹기 위해 만든 제품이다. 이러한 기획의도에 기반하여 소면과 유사한 얇은 면발을 제품에 적용하였다. 얇은 면발은 빠른 시간 내에 익어 더운 여름 불앞에 있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액상소스가 골고루 붙어 맛을 더욱 풍부하게 해준다.

팔도비빔면 판매량과 매출액



자료/팔도



▲꽃비빔면, ▲팔도비빔면 생산공정. /팔도

출시 이후 33년간 11억개 판매
끓여먹는 라면 고정관념 깨고
새콤 달콤한 비빔라면 개발해

비빔면 생소한 소비자 위해
CM송 제작해 조리법 알려

액상스프에 마늘·고추 등 추가해
‘만능 비빔장’ 출시, 100만개 판매



연도미상



팔도비빔면초기(연도미상)



2010년



팔도비빔면 1.2(2017년)

‘팔도비빔면’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 라면을 찬물에 헹군 뒤 소스에 비벼먹는다는 개념이 알려지지 않았던 때라 뜨거운 상태에서 비벼먹거나, 일반 라면처럼 끓여먹는 소비자들이 많았다. 팔도는 조리법을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해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양손으로 비벼도 되잖아”라는 CM송을 제작했다.

◆팔도비빔면 브랜드의 확장
최근에는 소비자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며 브랜드 강화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9월 선보인 ‘팔도 만능 비빔장’이 있다. ‘만능 비빔장’은 ‘팔도비빔면’ 제품에 들어 있는 액상스프에 매콤한 마늘과 홍고추, 새콤한 사과과즙, 달콤한 양파를 넣은 제품이다. 삼겹살, 골뱅이 등 어떤 요리에도 잘 어울린다.

시작은 만우절 농담에서부터였다. 지난해 4월 1일 팔도는 팔도기업블로그를 통해 ‘팔도 만능 비빔장 출시’라며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후 5월에 실제 ‘만능 비빔장’을 증정품으로 제공. 농담을 현실화했다.

‘만능 비빔장’이 들어간 ‘팔도 비빔면’ 1000만개는 40일 만에 완판되었다. 고객사은품으로 고객에게 제공한 수량 200만 개는 약 1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소비자들의 폭발적 반응에 팔도는 ‘팔도 만능비빔장’ 정식 출시를 결정하고, 유통채널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정식 출시된 비빔장 15만개는 판매 시작 22일 만에 완판됐고, 시장에 선보인 이후 현재까지 100만개 이상 판매되었다. 비빔장으로 신규 수입원을 발굴한

것이다.

기존 비빔면 중량을 20% 늘린 ‘팔도 비빔면 1.2’도 선보였다. 한 개는 양이 부족하고 두 개는 많다는 고객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면과 액상스프의 양을 늘렸음에도 가격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한정 출시된 1000만개는 50일 만에 완판됐다. 팔도는 추가 판매 요청으로 1000만 개를 추가 생산했고 이 또한 얼마가지 않아 판매 완료됐다.

최근에는 봄맞이 한정판 ‘봄꽃 비빔면’을 새롭게 선보였다. 꽃 모양 어묵이 담긴 건더기 스프를 추가 제작해 별첨한 것이 특징이다. 새콤달콤한 비빔면소스와 쫄면의 식감의 어묵이 잘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았다. 먹는 재미에 보는 재미를 더해 SNS상 인기를 끌며 일지각지 판매를 마감했다.

◆연간 판매량 1억개 눈앞

지난해 ‘팔도비빔면’ 매출액은 2016년 대비 8% 이상 증가한 490억원에 이른다. 판매량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해 연간 9,900만 개 가량 판매됐다. 출시 이후 지금까지 전체 비빔면 시장 내 부동의 점유율 1위다.

특히 2013년에는 한 TV예능 프로그램에서 골뱅이와 비빔면을 섞어먹는 ‘골뱅이 비빔면’이 야식으로 소개되며, 470억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윤인균 팔도 마케팅 담당자는 “30년 이상 팔도 비빔면이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은 타사가 따라올 수 없는 액상스프 노하우와 지속적인 품질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더 좋은 맛과 품질로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